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니타이드 몰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세계와 만나는
창
The Korea Daily
"미국의 중심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167호

Wednesday, November 6, 2024 A

돌아보는 트럼프의 대선 도전기 ‘민심’은 다시 그를 향하나

SPECIAL STORY

도널드 트럼프는 2016년 정치 경협 없이 해성처럼 등장해 미국 정치를 뒤흔들었다. 당시 그의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는 기존 공화당 지지층이 아닌 쇠락한 공업 지대인 ‘러스트 벨트’의 백인 노동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트럼프의 공약 중 하나는 강력한 반이민 정책이었다. 당시에는 ‘충격적’이었던 ‘국경 장벽 건설’ 공약과 함께 멕시코에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아주겠다는 트럼프의 외침에 보수 표심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트럼프는 연예인 출신답게 대중의 주목을 끌었다. 유세 기간 여러 성 스캔들이 터지며 약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할 것을 자랑하는 음성 파일이 공개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로 인해 트럼프는 여론 조사에서 줄곧 클린턴에게 뒤쳐지는 신세가 됐다. 그러나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이 터지면서 선거 구도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클린턴의 비서가 국무장관 재임 시절 폐기하지 않은 이메일이 문제가 되었고, 개인 이메일 사용이 FBI 수사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사건은 리비아 벤가지 사태와 연관되며 클린턴에게 불

리하게 작용했고, 결국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믿기지 않는 승리였다.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바이든에게 패배했다. 당시 흑인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M)’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트럼프의 대응이 유색인종 유권자와 젊은 층에 반감을 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통령 책임론’이 대선 캠페인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코로나 사태는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지며 일부 백인 노동자층마저 등을 돌렸다. 선거결과와 사실상 동률로 일부 경합주의 수천 표 차이가 승부를 갈랐다. 트럼프는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대선 결과에 반발하는 지지자들은 2021년 1월6일 ‘의사당 난입 사태’를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그는 하원에서 두 번째로 탄핵당했으나, 상원 표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다시 후보로 나섰다.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는 두 차례 암살 시도를 겪었으나 모두 살아남았다. 지지자들은 그를 미국을 구할 ‘영웅’으로 여겼으며, 고령문제로 각종 논란을 야기한 바이든에게는 더이상 트럼프를 꺾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민주당은 바이든을 냉혹하게 저버렸다.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가 민주당 후보로 나서며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었다. 해리스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지명되며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상승했고, TV토론에서도 트럼프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해리스의 지지율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경제 악화와 두 개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떠오르며, 해리스의 인기도 하락세를 보였다. 해리스의 ‘위드 셀러드’, 인터뷰에서의 잦은 실수도 변수로 떠올랐다. 선거일 직전까지 두 후보는 초반급 상황에 놓여 있었다. 미국 유권자들은 기존 공약보다는 상호 비방에 집중하며, “트럼프가 되면 미국이 망할 것”이라는 해리스 진영의 공격과 “해리스가 되면 미래가 없다”는 트럼프 진영의 네거티브 공격이 난무했다.

이제 트럼프가 세 차례 선거를 치르며 다시 백악관에 입성할지, 아니면 해리스가 사상 첫 흑인 여성 대통령으로 새로운 역사를 쓸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선거는 끝났고, 개표는 시작되었다. 한인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하느냐? 추측하기 이전에 그들 하나하나가 이번 선거에서 각자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기를 바랄 뿐이다.

박세용 기자

투표 1시간 전부터 줄... “미래 위해 나왔다”



첫 투표 디스빌 노치서 해리스-트럼프 3대3 미국 대통령선거일인 5일(현지시간) 0시를 기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투표를 시작한 뉴햄프셔주의 작은 국경 마을 디스빌 노치에서 한 여성이 투표소를 나서고 있다. 이 마을에선 투표 후 곧바로 결과를 발표하는데, 주민 6명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각각 3표를 던졌다. [AFP=연합뉴스]

대선 버지니아 투표소 르포

제47대 미국 대통령을 가릴 대선 본투표가 시작된 5일 새벽 버지니아 페어팩스 거버먼트센터의 투표소. 영상 10도에 바람이 불어 쌀쌀한 날씨인 데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어둠 속에서도 투표소 앞엔 투표 시작 한 시간 전인 오전 5시부터 유권자들이 모여들었다.

투표 시작 시간인 6시가 임박하자 투표소 앞엔 이미 30여 명의 긴 줄이 생겼다. 민주당 자원 봉사자 김벌리는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지난번 선거를 넘어설 것”이라며 “투표율이 높아진 이유는 트럼프 1기를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많은 사람이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버지니아는 민주당의 상대적 강세 지역으로 꼽힌다. 그러나 새벽부터 본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 중에는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투표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맨 앞줄에 선 흑인 남성 조셉 데이는 “나는 민주-공화당원이 아닌 중도 성향이지만, 이번 선거는 미국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선 민주당 지지자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공화당원도 사전투표에 참여해 과거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버지니아=강태화 특파원

» 2면 ‘버지니아’로 이어집니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한진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정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물받지 않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Mocurry Chiropractic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사전투표 이어 투표소 열기... 투표율, 지난번 선거 넘을 듯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트럼프 전 대통령(오른쪽)이 4일 격전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마지막 연설을 했다. 5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거버먼트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엔 투표 한 시간 전부터 유권자들이 줄을 섰다. 강태화 특파원, [AP·AFP·연합뉴스]

▶ 1번 '버지니아'에서 이어집니다
 실제 본투표가 진행되는 중에는 투표장 입구에 설치된 우편투표함에 자신의 투표용지를 넣는 유권자도 있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 유권자는 "나는 다른 지역 출신인데, 투표 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가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늘까지 기다려서 우편투표를 했다"고 말했다.
 가족 3명과 함께 일찍 투표장을 찾은 브라이언은 "우리는 민주당을 지지하

지만 투표는 당일에 하는 것이 전통이고, 내가 투표한 결과가 먼저 발표되는 본투표에 반영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투표가 민주주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선은 각 주(州)마다 투표 시간이 다르다. 이날 0시 뉴햄프셔 최북단 산골마을인 디스빌 노치를 시작으로 동부 뉴욕과 뉴저지, 버지니아 등

에선 오전 6시부터,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조지아 등에선 7시부터 투표가 시작했다.
 이날 0시 기준 등록 유권자 2억5000만 명 가운데 8271만 명이 사전투표를 마쳤다.
 이번 대선에선 공화당도 사전투표를 독려했기 때문에 과거와 다소 다른 양상의 개표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의 당적을 공개하는 26개 주의 사전투

표율은 민주당 37.9%, 공화당 36%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조접전 양상을 보인 이번 대선의 승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할 경우 2020년 대선 패처럼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4년 전의 폭력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각 주 정부와 선거관리 당국은 철통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주 정부 최소 24곳은 요청이 있을 경우 수도 워싱턴DC에 주 방위군을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체적으로 방위군을 배치했거나 대기시킨 주도 19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핵심 결합주인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주 등 10곳에선 주 방위군이 사이버 보안 임무를 위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경합주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등에서도 주 방위군이 필요 시 투입을 위해 비상대기 중이다. 버지니아=강태화 특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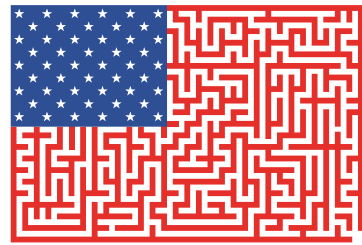
인종 정서와 국내 불안이라는 맥락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촉발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을 변화시켜왔다. 자유무역 정당에서 보호무역 정당으로, 동맹 정당에서 분담급 정당으로 변모시키는 시도다. 흥미로운 사실은 트럼프의 변화는 주로 대외정책 분야에 국한돼 있다는 점이다.
 보수 대법관 임명, 대규모 감세 정책, 강경한 이민 정책 등 대부분의 국내 정책은 전통적 공화당 입장 그대로다. 해외에서는 불안한 존재인 트럼프가 미국 국내에서는 안전한 선택일 수 있다는 얘기가.
 지난 10년간 미국 정치는 트럼프라는 블랙홀 상수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트럼프의 경우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정치인이 성공한 사례이기도 하다. 이제 그 트럼프가 다시 4년을 통치할지, 아니면 포스트 트럼프 시대가 열릴지 결정하는 순간이 다가왔다.

해리스냐 트럼프냐... 누가 이겨도 앞길 험난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인플레이션억제법 등 바이든 정책 지속
 상·하원 잃으면 의회와 대결 국면

서정건 경희대 교수가 본 미 대선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민·무역 장벽 세우기에 주력
 한·미 방위비 협정 뒤집을 수도



트럼프 개인에게 휘둘리는 공화당과 달리 민주당이 처한 딜레마는 복잡하다. 공화당 대통령들의 실책과 실패를 틈타 정권을 되찾아온 것은 2020년 코로나 19위기와 트럼프 불확실성을 발판 삼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벌써 세 번째였다. 임기 첫 2년 동안은 민주당이 행정부·의회를 모두 장악한 단점 정부 상황에서 백신 드라이브와 공급망 위기의 돌파구를 찾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에 이은 또 다른 중도파 바이든에게는 임기 내내 인플레이션을 잠재울 정책 도구가 없었다. 교체된 후보 카말라 해리스 역시 투표일이 다가

올수록 양극화 정서를 부추김으로써 민주당 고유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선거인단과 경합주라는 미국 특유의 선거 제도에 발목이 잡힌 민주당의 현실이기도 하다. 만일 민주당이 이번에 패배한다면 반트럼프와 양극화 논리 외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국민에게 다가갈지에 대한 치열한 내부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만일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이번 미

국 대선의 교훈은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제는 경제라는 사실이 재확인된다. 인플레이션이 미국 대선의 결정적 변수인 상황은 1980년 이후 44년 만에 처음이다. 트럼프라는 정치인에 대한 이해 불가 차원의 미국 사회의 관용성도 한뼘하고 있다. 민주주의 수호에 트럼프가 더 적격이라는 워싱턴포스트 설문 결과까지 있을 정도다.
 만약 해리스가 승리한다면 모든 것은 5일 함께 치러지는 연방의회 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 현재 예측대로 내년 새 상원이 공화당 지배에 놓이게 된다면 적어도 해리스 대통령 첫 2년 동안

안에 입법 성과를 내는 일은 어려워진다. 자녀 양육과 주택 취득 관련 세금 혜택을 부여하거나 부자 증세를 시도하는 일은 아예 물 건너간다. 만약 하원까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경우 2025년에 만료되는 트럼프 세금 감면 법안의 기한 연장을 놓고 해리스는 의회와 전면대결 국면에 돌입하게 된다.
 다만 중국과의 배터리 산업 경쟁에 도움이 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해리스 대통령 시대에 지속된다. 축소된 형태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를 공화당이 시도하더라도 해리스 대통령의 거부권 벽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단일대오를 촉진하는 우크라이나 지원은 당분간 이어가겠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의 불리한 동거는 민주당 내 논쟁 요소로 작동할 전망이다.
 이제 트럼프의 국경 심판 승리일지, 해리스의 정치 양극화 방어일지 뚜껑을 열고 기다릴 일만 남았다. 서정건 교수

워싱턴 날씨 (°F)

7일(목)	77-51	10일(일)	62-54
8일(금)	68-45	11일(월)	70-49
9일(토)	62-44	12일(화)	68-46

11월 6일(수) 81~62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오랜 경력으로 성심성의껏 팔고/사고/렌트해 드립니다.

MERCY CHIROPRACTIC **머시척추신경** **교통사고 치료 전문**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장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중현 한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email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연방법무부 VA 6곳 투표소 상주 감시

유권자 등록 삭제 사건 등 원인

연방법무부가 버지니아 등 27개주 86개 지역 투표소에 요원을 파견해 선거 과정을 면밀히 감시했다.

연방법무부 인권국 요원은 버지니아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매나사스, 매나사스 파크 시티), 라우던, 헨리코, 하노버 카운티 등 6곳에 상주감시요원을 파견했다.

연방당국은 감시지역 선정이유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연방법무부에 진정서 등이 접수된 지역이나 인권법 혹은 선거법 위반 가능 지역을 위주



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시요원은 투표권리법, 해외부재자 투표법, 유권자 등록법, 장애인법 등 연방법 준수 여부 등을 감시하고 유권자의 각종 불만사항을 청취했다.

연방법무부는 또한 지난달 글렌 영킨(사진) 주지사가 선거일 90일 이내에 유권자 명부를 수정할 수 없다는 연방법을 위반하고 1600명을 삭제한 사건 이후 피해입은 유권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대법원은 버지니아 주정부 행위가 정당하다며 행정대집행 가처분 결정을 인용했으나, 연방법무부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 정식 소송으로 맞서고 있어, 버지니아 주정부는 이번 연방법무부의 상시감시요원 파견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연방법무부 인권국은 부재자 투표와 우편투표 등 때문에 개표 및 최종 집계 늦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투표일 이후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신고(www.civilright.justice.gov, 800-253-3931)를 당부했다. **김옥채 기자**

수돗물 '화학물질(PFAS)' 기준 강화

지역정부 수십억불 비용 주민에게 전가

연방환경보호청(EPA)가 '영원한 화학물질'로 알려진 과불화화합물(PFAS)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지역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상하수도공사인 페어팩스 워터는 카운티 정부 수퍼바이저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5억달러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대부분의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PFAS는 1940년대부터 개발된 약 1만종의 인공 화학물질로, 식품과 포장재, 화장품, 후라이팬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에서 사용된다.

EPA는 연방법에 따라 오는 2029년까지 수돗물 검출 PFAS 수치가 1조 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기준치 이상을 넘을 경우 엄격한 제재를 예고했다.

기준치를 아래로 내리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고 재원 마련 방법이 없는 지역정부는 요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그

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할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당국은 수돗물의 PFAS 수치를 낮추면 치명적인 암, 간, 심장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의 면역 및 발달 손상 등 건강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페어팩스 워터는 포토맥강 취수원은 기준치 아래이지만, 오크관강 취수원은 5.5조 분의 1로 기준치를 넘어선다고 있다.

페어팩스 워터는 오크관강 취수원 정수장에 특수 필터를 설치하고 장비를 개선하는데 최소 6년 동안 4억 달러 이상의 자본 지출과 연간 2400만 달러의 추가 운영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페어팩스 워터는 페어팩스 카운티 등 170만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지역 정부는 물론 주정부도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제프 맥코이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장은 "대대적인 인프라 개선없이도 EPA 기준치 이하로 낮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제대로된 현실 인식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재미대한사격연맹 트랩 슈팅대회 성황



대회에 참석한 선수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지난 2일, 워싱턴 DC재미대한사격연맹(회장 지대성)이 주최한 트랩 슈팅 대회에서 버지니아 센터빌에 거주하는 김만기 씨가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는

버지니아 센터빌의 불런 사격장에서 열렸으며, 김 씨는 100발 중 84발을 명중시켜 남자 부문뿐만 아니라 전체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총 17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의 남자 부문 2위는 지대성 회장이 83발을 명중시켜 차지했으며, 여성 부문 1위는 이리연 씨(83발 명중), 2위는 이다은 씨(49발 명중)가 각각 수상했다. 주니어 부문에서는 함세나 씨가 79발로 1위, 이태미 씨가 50발로 2위를 기록했으며, 올해의 신인상은 이동은 씨(50발 명중)가 받았다. 이번 대회에 특별 참가한 조지메이슨대 사격 코치인 제프 씨는 100발 중 86발을 맞히며 실력을 과시했다.

한편 사격연맹은 매주 토요일 오전에 연습 세션을 운영 중이며, 이번 대회는 내년에도 열릴 예정인 달라스 미주체전 참가 선수 발굴을 위해 마련되었다. 가입이나 문의 사항은 (202)384-4240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윤미 기자**

도심 불법 자동차경주 용의자 체포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이 타이슨스 도심지역 도로에서 불법 자동차 경주를 벌인 운전자 두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13일 타이슨스의 리스버그 파이크와 웨스트우드 센터 드라이브 등 도심지역 도로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릭과 람보르기니 차량으로 불법 자동차 경주를 일삼았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온라인 공간을 떠돌던 불법 경주 장면을 정밀 분석해 사이버트릭 소유주 겸 운전자 크리스찬 카마초(48세, VA 비엔나), 람보르기니 소유주 겸 운전자 카를로스 몬테로(37세, VA 스티링)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몬테로가 먼저 체포됐으며 이 소식을 들은 카마초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불법 자동차 경주와 난폭 운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카운티 법원은 이들을 체포했다가 보석으로 석방했다. 카운티 경찰국은 이 불법 경주에서 깃발을 들고 출발을 알렸던 기수를 공개수배했다.

당국에서는 동영상(https://youtu.be/JrQ5ECrk2V4)을 공개하고 적극적인 제보(703-280-0543, 1-866-411-8477)를 당부했다.

김윤미 기자

전립선암 무료 검진 법안 통과

워싱턴DC 의회가 남성 전립선암 무료 검진 보장법안을 통과시켰다.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서명 절차를 거쳤으나, 워싱턴DC 의회 법안은 모두 연방하원의회의 검토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확정은 다소 늦어지고 있다.

법안에 의하면, 워싱턴DC에서 영업하는 모든 보험회사는 가입 남성회원에게 매년 무료 전립선암 검사 서비스

를 제공해야 한다. 검사 조항을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보험 디덕터블이나 코페이먼트 인상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DC의회는 특히 흑인 남성의 전립선암 사망비율이 매우 높게 나와 무료 검진 법안을 추진해왔다.

전립선암은 일찍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고 사망률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미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옴니!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옴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형사법 전문 변호사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DAVID MARKS**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맥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맥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맥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Martindale-Hubbell
NOTABLE
Peer Rated for Standing Ethical Standards 2019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트럼프에 올인’ 테슬라 ‘득’ 될까

대선일 주가 장중 4%대 ↑

대통령 선거 당일인 5일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 주가가 장중 4%대 반등했다. 뉴욕증시에서 이날 낮 12시(동부 시간) 기준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4.1% 오른 252.82달러에 거래됐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달 28일부터 전날(4일)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내린 바 있다.

7거래일 만에 큰 폭으로 반등한 이날이 대선 당일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이번 선거 결과를 테슬라에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머스크는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지난달 5일 트럼프 지원 유세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로이터 연합뉴스]

을 지원하기 위해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 ‘아메리카 팩’을 직접 설립해 운영했으며, 공화당 상·하원의원 후보 지원을 포함해 최소 1억3천200만달러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는 지난 9월부터 자신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하면 연방정부에 대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부효율위원회(government efficiency commission)를 만들고, 이를 머스크에게 맡길 것이라고 밝혀왔다.

월가에서는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올인’한 만큼, 트럼프 당선 시 관련 규제 완화 등으로 테슬라의 사업에 득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실패하고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 해도 전기차 사업에 유리한 친환경 정책이 유지되거나 확대돼 테슬라에 별 타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화 부통령 후보 밴스 “결과 알 수 없지만 느낌 좋다”

오하이오주에서 부인과 투표 완료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연방 상원의원(오하이오주·사진)은 대선일인 5일 오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완료했다.

부인 우샤 밴스, 아이들과 함께 한 정당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밴스 의원은 투표 후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이번 선거에 대해 느낌이 좋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그는 “몇 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내 (상원의원) 선거 때 기분이 좋았다. 몇 년 전 오하이오주가 나에게 그랬던 (승리를 안겼던)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나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초박빙 접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밴스 의원은 누가 당선되든 국민의 절반은 실망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나라를 최대한 잘 운영하고 가능한 한 많은 번영을 창출하며 어떻게 투표했건 모두가 기본적으로 같은 팀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의 분열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밴스 의원은 “나는 여러분이 트럼프에게 투표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동료 시민으로 대할 것”이라며 “운 좋게 부통령이 된다면 여러분의 꿈과 가족을 위해 4년을 열심히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플로리다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선거 결과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밴스 의원은 “미국 부통령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하게 된 것에 마음이 벅차다”며 “내가 이 자리에서 있는 것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이는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자신에게 미국 사회에서 최고의 자리에 도전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부인과 함께 플로리다서 투표 “대승 자신”

“패배시 공정한 선거라면 승복”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당일인 5일 오전(현지시간)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투표한 뒤 “우리가 매우 상당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모던 맨덜 레크리에이션 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기자들과의 약속 회견에서 “매우 자신있다”며 “우리가 오늘 큰 승리를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선에 3번째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이 최고의 선거운동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첫 대선(2016년)에서 훌륭하게 했고, 두번째 대선(2020년)때 훨씬 더 잘했는데 무언가 일이 발생했다”며



투표후 투표장 나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 [로이터·연합뉴스]

자신이 패한 4년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사실상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패배할 경우 승복할 것이냐는 질문에 “만약 공정한 선거라면 승복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선거 불복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나란히 선거인단 과

반(538명 중 270명)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지에 대해 “그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분증 확인을 거쳐 종이투표 용지로서만 투표하게 한다면 이날 오후 10시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구호가 새겨진 붉은 모자에 노타이 정장 차림을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인플레이션이 재앙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최우선 이슈는 국경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범죄자들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도록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개인 리조트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에서 지인들과 개표 결과를 지켜본 뒤 수천명의 지지자들이 기다리는 인근 컨벤션센터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

“미국인, 분열에 지쳐...우린 공통점 더 많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사진) 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일인 5일 “우리 모두는 우리를 갈라놓는 것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오전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이 시대에 솔직히 지쳐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선 상대인 공화당 대통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편 가르기’식 정치



스타일을 지적하면서 포용과 화합의 정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는 성공과 좌절을 함께 겪는다”면서 “리더십은 공통점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질책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조지아주 애틀랜

타의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이 자신을 “지능이 낮다”(low-IQ individual), “쓰레기”(trash) 등으로 모욕한 것에 대해선 “소음”(noise)이라고 규정하며 일축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밴스 상원의원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채 “내가 집중하는 걸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나는 그런 소음에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그건 무엇보다 정말로 그들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U정상들, ‘공통된’ 대미 메시지 조율 시도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미국 대선 이틀 뒤인 7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집결해 ‘공통된’ 대미 메시지 조율을 시도한다.

EU 고위 당국자는 5일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오는 7일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주최하는 만찬에서 회원국 정상들이 ‘대서양 관계’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대 미 대선 당선자 확정까지 수일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EU 정상 만찬 시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당국자는 “당선자가 누구든지(EU의) 공통된 입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동의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며 EU-미국 관계의 중요성, 우크라이나 지속 지원 등에 관한 메시지 발신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선 판세에 따라 하나 된 목소리를 조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국자도 “정상들이 변함없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7개국 모두가 그럴 것인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인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해온 ‘호스트’ 오르반 총리가 원론적 수준의 EU 공통 메시지 발신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오르반 총리는 만찬 외에 EU 하반기 의장국 자격으로 7, 8일 연일 정상급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지만, 준비 과정에서부터 뒷말이 무성하다.

그는 7일 오전에는 EU 27개국을 포함해 47개국 정상이 초청된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를, 8일에는 EU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일각에서는 EU 노선에서 변변이 이탈했던 친러 성향의 오르반 총리가 잇단 행사를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자리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지 매체와 외교가에선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오르반 총리가 EPC 회의 화상연설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깜짝 초청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가 7월 EU 순회의장국이 되자마자 ‘평화 임무’를 자임하며 러시아, 중국을 방문해 다른 EU 회원국들의 비판을 받았다.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Care People Home Health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배신, 권이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VA-센터빌/아난데일/폴스처치/
페어팩스/뉴포트뉴스
MD-게이더스버그/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12/9-12/13 전화 예약 필수!

애난데일 사랑방 이전

(로우 코스트, 베스트케어 치과) 2층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만나봤습니다

KC파이낸셜 곽민우 대표

“보험, 사후에도 남은 가족을 위한 든든한 자산입니다”

보험전문가들은 보험에 대한 완고한 인식을 바꾸면 은퇴 준비를 포함한 보다 여유로운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버지니아 애난데일 소재 KC파이낸셜 곽민우 대표는 “한국에서는 ‘보험아줌마’가 억지로 가입을 강요하는 사기성 있는 상품이라는 오해가 팽배해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미국인들은 생명보험을 재산상속과 부의 증식 수단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과 비교된다”며 안타까워 했다.

생명보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종종 부정적이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자산을 보호하고 대물림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며, 미국에서는 다양한 세대가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20년 경력의 보험 전문가 곽민우 대표와 함께 생명보험의 필요성과 활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생명보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데 어떠한가?

“그렇다. 한국에서는 생명보험을 ‘내가 살아서는 받을 수 없는 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종종 보험

설계사가 억지로 가입을 권하는 사기성 상품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큰 오해다. 미국에서는 생명보험을 자산 대물림이나 자산 보호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을 통해 자녀 세대에 재산을 넘겨주거나 남은 배우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생명보험에 관심을 가지는 주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

“대체적으로 50대의 보험 가입이 많다.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나이가 되면 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30-40대 기혼자들도 어린 자녀를 위한 각종 보험을 고려한다. 보험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면 보다 재정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평생주기에 의한 재정 플랜을 설계할 수 있다. 보험은 가족을 위한 중요한 준비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추세다.”

-보험을 준비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경우, 남은 가족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20년 경력에 비해 보면 백수를 누리고 돌아가시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은 갑작스런 죽음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가계를 책임진 장이 사망한 후 남은 가족들의 삶이 힘들어 지는 것을 많이 보았다. 경제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남은 가족의 삶이 어려워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특히 고령층은 자식들보다는 배우자를 위한 간병이나 생활비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생명보험이 있으면 장례비나 간병비를 포함해 남은 배우자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미국에서 생명보험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생명보험은 보상금 뿐만 아니라 자

신과 배우자의 노후 간병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한인들과 미국인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상속’이다.

미국인들은 자신의 자산을 가장 쉽고 빠르게 자녀세대에 넘겨 줄 수 있는 수단으로 보험을 꼽는다. 젊었을 때부터 가정을 꾸리고 나서 미래의 예기치 않은 위험에 대비하고 가족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보험을 활용한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면세수단이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덜어낼 수 있으며 거액이라고 하더라도 각종 생명보험 플랜으로 합법적 상속을 보장받는다.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 이전에도 사망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보험보상금을 미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뿐만 아니라 본인을 위해 보험을 활용할 수도 있다.

보험은 일생주기의 복잡한 변화에 맞춰 가장 빠르게 변신하는 금융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생명보험의 진화 속도는 눈부실 정도로 빠르다. 상당수의 한인인 보험의 보장성만 부각시키지만, 저축성이 충분한 생명보험 상품도 얼마든지 많다.

필요시 생명보험을 담보로 제공했고 용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저축성 금융상품과 큰 차이가 없다. 기업도 보험을 통해 주요 보직자에게 또는 그 가족 보호를 위

해 보험을 베네핏으로 제공해 애사심을 이끌어내고 동업을 할 경우 등 업자간 수혜자를 지정해 위험을 줄이기도 한다.”

-20년 동안 보험 업무를 하면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보험업에 종사하다보니 많은 한인들의 죽음을 목격하게 된다.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기에 든든한 보험에 가입해 남은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매번 깨닫는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레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며 느낀 것은, 믿을 수 있는 보험에 미리 가입해 남은 가족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보험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 보험은 단순한 재정적인 지원을 넘어서, 가족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생명보험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 죽음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가족들의 삶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보험에 대해 잘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 가족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

▷문의: 703-945-9957(곽민우 KC파이낸셜 대표) 김윤미 기자

아들 위해 만든 고우-카트 트랙 ‘논란’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의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 뒷마당에 고우-카트 트랙을 만들었으나 퍼밋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이웃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하워드 카운티의 하이랜드 지역 11에 이커 부지의 주택에 거주하는 크리스 시페르코는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사진=위키미디어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아들 아킬레스를 위해 20만달러를 들여 이 트랙을 건설했다고 말했다.

트랙은 지난 1월 중순 완공했다. 아들을 자동차 레이서로 만들기 위해 거의 매주 플로리다 여행을 떠났는데, 집안에 연습장을 만들겠다는 생각 뿐이었다고 전했다.

트랙을 만들려고 카운티 정부 조닝 규정 등을 모두 조사했으나 퍼밋을 받아야 한다는 대목을 발견하지 못했다

는 것이다.

건설업자도 사유지 내에 이러한 트랙을 만들고 다른 공공 도로나 드라이브웨이와 만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카운티 정부 규정상 5천스퀘어피트(1/8에이커) 이상의 토지를 훼손할 경우 반드시 퍼밋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커다란 소음을 유발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해치고 있기에 즉각

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페르코는 카운티 정부와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청원 사이트 체인시닷오르그에 자신의 처지를 알리고 트랙을 보존해달라는 청원 서명 1700개 이상을 받은 상태다.

그는 “내 아들이 농구를 원했다면 농구장을 수영을 원했다면 수영장을 건설했을테지만, 그가 카 레이서를 꿈꿨기 때문에 트랙을 만들었”이라고 항변했다. 김욱재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rve Control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0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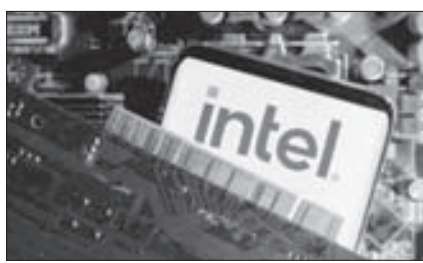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이화조물) | 헤일리노래방

미락조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은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주세요~

엔비디아, 인텔 밀어내고 다우지수 편입

‘인공지능’이 운명 같았다
모바일·AI서 경쟁력 잃어



한때 ‘반도체 제국’으로 불리던 인텔이 25년간 자리를 지켜왔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이하 다우지수)에서 빠진다. 대신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그 자리를 꿰찼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에 이어 다우지수에 편입된 네 번째 빅테크 기업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AI 붐에 따른 반도체 산업 지형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한다. 지수 운영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지수’는 지난 1일 다우지수에서 인텔을 제외하고 엔비디아를 편입한다고 발표했다. 지수는 오는 8일

개편된다. 1896년 출범한 다우지수는 국내 3대 지수 중 가장 오래된 지표로, ‘뉴욕 증시의 상징’으로 불린다. 국내 기업 가운데 각 분야를 대표하는 우량 기업 30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다우지수 편입 종목 변경은 AI에 따른 기술 산업 지형 변화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인텔은 1990년 PC 붐을 타고 중앙처리장치(CPU) 시장을 석권했지만,

이후 모바일과 AI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뒤쳐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분기(4~6월) 실적에선 1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 8월엔 전체 직원의 15%에 해당하는 1만50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다. “인텔 제국이 몰락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 지도 오래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그래픽처리장치(GPU)의 독보적 공급원으로 부상하며,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AI 모델의 학습·추론에 필수 반도체인 AI 가속기 시장의 90%를 장악할 정도다. 이는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 180%가량 올랐지만, 인텔은 50% 넘게 빠졌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엔비디아(3조

3210억 달러)가 인텔(1000억 달러)의 30배를 웃돌며 2위로 뛰어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술 업계에서 이들의 운명이 뒤바뀐 것을 보여준다”며 “몇 년 전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을 일”이라고 진단했다. 시장은 그간 다우지수 상승의 발목을 잡던 인텔이 빠지면서 지수가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다. 반면 인텔 주가엔 먹구름이 예상된다. 영국 투자회사 하그리브스 랜즈다운의 수제너 스트리터 분석가는 “이번 사건은 인텔의 평판에 타격이 될 것”이라며 “인텔이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포함되지 않게 돼 주가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했다. **황의영 기자**

브리프

누가 되든 대선 이후 주가 상승

대선 이후 뉴욕 주식 시장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 전망에 힘이 실린다. 지난 대선 정국에서도 증시는 결과 발표 이후 연말로 갈수록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 4일 노무라자산운용에 따르면 S&P500지수는 2008년 리먼 쇼크 때를 제외하고 지난 7번의 대선 이후 연말까지 평균 4% 뛰어올랐다.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주가는 날개를 달았다. 노무라자산운용의 히데유키 이시구로 수석 전략가는 “국내총생산(GDP)과 실업률 등의 경제지표를 보면 올해 경제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경기침체만 아니라면 이번 대선 이후에도 시장은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넛케이 베리타스가 시장 전문가 7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 응답이 80%에 달했다.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상하양원 의원 결선을 뽑는 의회 중간선거도 향후 주식 시장의 흐름을 결정할 중요한 요인이다. 과거 정계 개편은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웹시, 공장 폐쇄·400여명 해고

탄산음료 웹시콜라를 만드는 웹시콜라가 국내 병입공장 4곳을 폐쇄하고 약 400명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ABC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운영 효율화를 위한 공장 폐쇄로 신시내티에서 136명, 시카고에서 131명,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127명, 애틀랜타에서 50명 미만의 직원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카고 공장은 완전히 문을 닫으며 다른 세 곳에서는 판매, 배송 및 창고 기능이 유지된다. 지난달 초 웹시콜라는 북미, 중국 및 기타 지역의 소비자들이 수년간의 가격 인상 여파로 음료와 스낵 구매에 지갑을 닫으면서 올해 매출 전망을 낮춘 바 있다. 웹시콜라의 북미 음료 매출은 올해 2분기와 3분기 모두 3% 감소했다. 웹시콜라의 지난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한 29억 달러에 그쳤다. 웹시콜라는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빅테크 빅4, ‘AI 썬의 전쟁’

주요 빅테크(거대기술기업) 4곳의 올해 AI 설비투자액이 288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시티그룹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플랫폼(페이스북 모회사), 아마존, 알파벳(구글 모회사)의 올해 설비투자 합계가 전년 대비 42% 늘어난 20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80%가량은 데이터센터 부문에 투입될 것으로 봤다. 최근 발표된 이들 기업의 3분기 설비투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약 62% 늘어난 600억 달러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MS는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50% 늘어난 149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들 기업은 생성형 AI가 핵심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운영비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며, MS와 구글의 클라우드 부문 성장세도 이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MS는 AI 부문 연간 매출이 100억 달러에 근접했으며, 이는 MS 사업 부문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세라고 밝혔다.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브렌트 킬 에널리스트는 MS의 이러한 수치 공개가 미래적이며 생성형 AI가 매출을 내기 시작했다는 증거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불명확한 이익보다는 설비투자 비용을 우려하는 투자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알라이언스벤처스 펀드의 팀 티어니는 이들 기업이 AI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이윤에 타격이 있으며 내년이면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내년 추석 미주 노선 예약 시작 에어프레미아, LA·샌프란·뉴욕

에어프레미아는 오는 6일 오전 10시(한국시간)부터 내년 하계 시즌(3월 30일~10월 25일)의 미주 3개 노선 예약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내년도 하계 예약일정이 오픈 되면 가장 10일의 추석 황금연휴기간 미주 항공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어,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의 여행준비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에어프레미아는 미주노선에 뉴욕 주4회(11월14일부터 주5회로 증편), LA 주7회, 샌프란시스코 주4회를 운항하고 있다. 운항스케줄은 내년 하계기준 ▶뉴욕에서는 01시에 출발하고 뉴

욕 노선은 인천에서 밤 9시30분(한국시간)에 출발한다. ▶LA 노선은 LA에서 오전 10시50분, 인천에서 낮 12시50분에 출발하며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낮 3시, 인천에서 저녁 5시30분에 각각 출발하는 일정이다. 다만 이 같은 운항스케줄은 정부 인가 조건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내년도 추석 황금연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 기간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에게 이른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지난해보다 한 달 정도 빠르게 예약을 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젊은 의사들도 ‘일과 삶의 균형’ 논쟁

“의사 절반이 이미 번아웃”
개업보다 파트타임 선호



워라벨을 중시하는 젊은 의사들이 장시간 근무 관행을 거부하고 있다.

수십년간 이어져 온 의사들의 장시간 근무 관행에 젊은 의사들이 반기를 들면서 의료계에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논쟁이 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3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젊은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의사의 장시간 근무와 휴일 없는 살인적인 근무 스케줄에 시달리는 관행을 거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사협회(AMA)에 따르면 의사들은 평균 근무시간은 주당 59시간에 이른다. 의사 절반가량은 번아웃(burnout·극도의 피로와 의욕 상실)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과거만 해도 이러한 장시간 노동과 스트레스는 의사라는 소명과 함께 당연히 따를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의대를 졸업한 젊은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플로리다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조지프 콤포트(80)는 WSJ에 과거 수십년간 의사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호출기가 울리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의사들도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다”며 “그것이 신세대들이 행동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젊은 의사들은 이제 의사는 소명이라는 전제에 거부감을 드러내며 다른 근로자처럼 병가와 연차 휴가, 최소 근무 시간 등의 복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브리검 여성병원에서 레지던트 교육

프로그램을 지도한 의사 조엘 카츠(66)는 전했다. 보험과 같은 행정 업무 부담가중도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사명감’이 줄어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샌프란시스코에서 1년 차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도만스키(29)는 “환자들에게 좋은 진료를 제공하고 함께 있는 것은 매우 기쁘지만, 의료계는 더욱 기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 많은 의사가 환자를 돌보기보다는 보험 회사와 씨름해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워라벨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업보다는 대형 병원에서 정해진 시간만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근무에 대한 선호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초 첫 아이를 가졌다는 도만스키는 레지던트 수련을 마친 뒤에는 주4일 근무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전반적인 의료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합뉴스**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리치몬드 페넬룰라 상담원영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적정도 많고, 공정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칼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 변호사 임종범 ·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
적정도 많고, 공정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 사무장 김진주 ·

“최선 다한 캠페인… 승리 소식 전할 것”

한인 출마자들 필승 다짐
“유권자들의 선택 기다려”
지지자들과 개표상황 확인

올해 초부터 1년 가까이 득표 활동을 펼쳐온 남가주 주요 한인 후보들도 투표를 마치고 겸허하게 민심의 선택을 기다린다. 오후 8시로 마감되는 투표에는 실제 우편 투표로 일찍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이 많다.

정치 전문 폴리테크데이터(PDI)에 따르면 가주 전체 유권자 2260만여 명 중 3일까지 총 776만여 명(34%)이 투표를 마친 상태다. LA 카운티에서는 600여 곳의 투표소에서 지난 2일부터 나흘 동안 투표가 이뤄졌다. 특히 4일 오후부터는 온종일 유권자들의 투표 행렬이 이어졌다.

아직 전체 유권자 투표율을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4년 전(2020년)보다는 소폭 낮은 투표율을 전망했다. 센서스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미국 전체 대선 투표율은 62.8%로



데이비드 김(왼쪽) 후보와 지지자들이 4일 오후 한인타운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그레이스 유 후보와 지지자들이 3일 한남체인 입구에서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그레이스 유 후보 선거사무실 제공]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가주는 68.8%의 투표율을 보였다.

3일 오후 현재 가주의 투표율은 34%다. 2020년 투표 이틀 전에는 1000만 명을 넘어 40%의 투표율을 기록했었다. 막판 투표가 몰려 투표율이 올라갈지 주목된다.

연방 하원 34지구 데이비드 김 후보는 “캠페인 기간 최선을 다했으며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마음이 반영돼

새로운 바람이 한인타운에 불어오길 희망한다”며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김 후보는 선거 당일인 5일(오늘) 오후 LA 한인타운 ‘오늘통닭’에서 개표 상황을 확인한다. ‘격전지’로 전국에서 이목이 쏠린 연방 하원 45지구 미셸 스틸 후보 캠프도 부에나파크 소스몰에 마련된 캠프 사무실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영 김 후보(연방 하원 40지구) 측은 빌라파크의 록웰 베이커리에서 8시부터 승리 파티를 연다. 가주 상원(37지구) 도전에 나선 최석호 후보는 뉴포트 비치 공화당 공동 승리 파티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최 후보는 “힘겨운 싸움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후회 없다”며 “한인 사회에 희소식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LA시 10지구에서 임명직 현역에 맞서 캠페인을 벌여온 그레이스 유 후보는 한인타운 월튼 플레이스의 한 지인 자택에서 개표 과정을 지켜본다.

유 후보는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꼭 승리 소식을 전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번이 없는 한 LA 카운티 검사장에서 우위를 보고 있는 도전자 네이선 호크먼 후보는 현 검사장인 조지 개스콘과의 싸움에서 승리가 유력하다. LA시 14지구는 막판 욕설 논란과 함께 현역인 케빈 드레온과 이사벨 후라도 후보가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LA 카운티 선출직 확대안을 담은 발의안 G의 통과가 유력하며, LA시의 지역구 재조정과 확대를 담은 시 헌장 개정 발의안 DD와 LL의 통과도 과반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렌트 컨트롤 강화를 담은 가주 발의안 33은 찬반 양론이 격해 개표 상황을 지켜봐야 하며, 상습 절도범과 마약범죄 처벌 강화를 담은 발의안 36은 과반 이상의 찬성이 예상된다. 최인성 기자

KIWA, 내부 노조원 탄압 주장 파문

(한인타운노동연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한인 업체들의 노조 결성 지원에 앞장서온 한인타운 노동연대(이하 KIWA·소장 알렉산드리아 서)가 정작 자체 노조 조합원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KIWA 노조원들은 운영진의 보복 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내부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KIWA 직원 노조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30분 한인타운 버몬트 애비뉴와 올림픽 볼라바드에서 KIWA 지도부의 보복 중단 등을 요구하며 가두 행진을 진행했다. 전·현직 직원 및 커뮤니티 활동가 60여명이 행진에 참여했다.

KIWA 노조원인 니넬 모랄레스는 “노조가 결성된 후 상사는 내가 맡고 있던 조직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



KIWA 직원 노조원들이 지난달 31일 한인타운 버몬트 애비뉴와 올림픽 볼라바드에서 가두 행진을 하고 있다. [KIWA 노조 제공]

고 조직 캠페인과 중요한 활동에서 배제시켰다”며 “특정 커뮤니티 리더와의 협력을 중단하라는 지시까지 했는데, 이는 개인에 대한 보복일 뿐 아니라 KIWA 직원의 신뢰와 사기를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KIWA는 지난 9월 전국노동관계위원회(이하 NLRB)가 주관한 투표를 통해 정식으로 노조가 설립됐다. 하지만, KIWA 노조 측은 “노조 설립 후 노조

원을 상대로 한 KIWA 지도부의 보복 행위가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가두 시위의 배경을 알렸다.

아리아나 로드리게스 KIWA 커뮤니티 케어 코디네이터는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이야기를 공유한 이후 전직 직원 수십 명이 본인이 당한 보복 경험을 알려왔다”며 “KIWA에서는 5년 전에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노조 결성 운동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KIWA 임에도 조직 문화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는 직원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KIWA는 억압적 의사 결정 구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매우 심한 곳”이라며 “감정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일하기가 불가능하며, 이런 직장은 난생 처음으로 이런 상태라면 단체 자체가 기능하기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

KIWA의 자체 노조 설립 저지 논란은 NLRB 투표 이전부터 계속돼왔다.

(본지 8월 29일자 A-2면)

본지는 알렉산드리아 서 KIWA 소장 등 운영진에게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화를 했지만, 4일 오후 5시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KIWA는 그동안 한인타운 업체들의 노조 설립을 지원해 온 CRRWU(California Retail & Restaurant Workers Union)와 사실상 같은 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CRRWU의 대표(호세 허난테스)와 재무 담당(알렉산드리아 서) 등이 KIWA의 핵심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CRRWU는 코웨이 USA 등의 노조 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지만, 결성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결국 CRRWU가 적극적으로 나섰던 코웨이 USA, LA 한남체인 노조 결성 투표는 모두 부결됐다. 장영·김경준 기자

한인 셰프 ‘반찬’ 요리책 인기

한인 셰프 캐롤라인 최가 펴낸 반찬 요리책이 주목받고 있다. 30일 노스웨스트 아시아 위클리 최씨의 요리책 ‘반찬: 맛있게 나눠 먹을 수 있는 60가지 미국식 한식 요리법’을 집중 조명했다. 이 책은 아마존(amazon)의 요리책, 음식 및 와인 카테고리에서 에디터스 픽으로 선정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최씨는 “한식이 여전히 전통적인 틀에 갇혀 있다고 느낀다”며 “사람들이 그 틀을 벗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책에는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아보카도 김치 니기리와 같은 미국식 일식 요리부터 결절이, 해물 파전 등 전통 반찬, 그리고 ‘핫 허니’ 크리스피 두부와 파무침 피자 같은 독창적인 메뉴가 담



반찬의 저자 캐롤라인 최(오른쪽) 셰프와 레이첼 양셰프. [나나환/NORTHWESTASIANWEEKLY]

겨 있다. 이 책을 완성하는 데는 약 2년이 걸렸다. 최씨는 “미국, 영국, 호주, 한국에서 출간될 예정이라 제목에 ‘미국식’이라는 단어를 넣을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출판사의 제안은 ‘현대 한국 요리 60가지’였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

다”며 “이 책은 나 자신이고, 내 음식이며, 나는 한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뉴욕에서 활동하는 최씨는 셰프이자 아티스트, 교사, 작가로, 일러스트 시리즈 ‘디 익스플로러토리언스’(The Exploratorians)를 제작했으며, 예술과 음식 교육을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크리에이트 앤드 플레이트(Create & Plate)’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윤재 기자

2025 메디케어 보험 신청 및 변경 10월 15일 ~ 12월 7일

무료상담!!

“**혹**” 달라진 보험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파트 B 보험료 보조 플랜과 \$3000의 치과 커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703-591-0009
703-537-9899

전화 주실 분

- ◆ 보험변경 하실 분
- ◆ 65세와 1960년생
-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소지자
- ◆ 치과 커버 필요하신 분
- ◆ 안경 혜택과 OTC 혜택

조은혜 종합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페어팩스 법원 건너편/모스비 타워 건물 2층)

Partner
보험회사

앤티 / 에트나 / 유나이티드
휴메나 / 케어헬스트 / 웰케어

젊은층 내집 마련은 꿈?

구매자 평균나이 56세
신규 주택 구매자도 38세
첫집 장만은 24%에 불과
'다운페이' 가 구입 장애물



단독주택이 몰려있는 한 주택가. [로이티]

주택구매자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젊은층이 부동산 시장에서 밀려 나오 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NAR) 연례 (2023년 7월~2024년 6월) 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주택구매자의 평균 연령은 56세로 전년의 49세에서 뛰어올랐다. 1년새 7살이나 늘었다.

2010년대 초반의 40대 초중반 연령 과 비교하면 역대 최고치다.

신규 주택구매자도 이전보다 나이가 많고 부유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주택구매자의 중간 연령은 35세에서 38세로 올랐다. 이전만 해도 20대 후반이었다. 이 기간 처음 집을 구매한 사람은 전체 구매자의 24%에 불과했다. 1980년 지표 추적 이래 가장 낮은 비율이다. 반면 구매자의 중간 가구 소득은 전년의 9만5900달러에서 9만7000달러로 1100달러 증가했다.

매사추세츠에 있는 락랜드 트러스트 은행의 밥 드리스콜 주택대출부 수석 부사장은 "20년 동안 모기지 부문에

서 일했지만 밀레니얼 세대가 주택을 구매하기에 이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본 적이 없다"며 "주택 소유 비용 상승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젊은 예비 주택구매자들의 주택 구입을 막는 첫 번째 장애물은 다운페이먼트 마련이다. 학자금 대출, 높은 임대료, 경력 초기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해서 다운페이먼트 저축이 힘든 상황이다.

NAR에 따르면 중간 주택가격은 43만5000달러로 2020년 이후 39%나 뛰어 올랐다. 30년 고정모기지 같은 기간 동안 2배 이상 상승해 6%를 훌쩍 넘었다.

43만5000달러 주택 구입 시 평균 다운페이먼트인 18%를 내려면 7만8300달러는 있어야 한다. 이는 전국 중간 가구 소득이 8만610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결국 주택 구입에 필요한 다운페이먼트와 소유 및 유지 비용을 마련하

려면 예전보다 훨씬 긴 기간이 필요한 셈이다.

상황이 이러니 상대적으로 부를 쌓을 기간이 부족했던 젊은 예비 주택구매자는 오히려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모기지 금리가 6%대를 기록하는 이런 주택 시장 환경에선 그들은 현금 구매자와도 경쟁해야 한다. 보고서는 현금 구매자의 주택 구매 점유율이 전년의 20%에서 26%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신규 주택구매자의 4분의 1은 친척이나 친구로부터 선물이나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주택을 샀다고 덧붙였다.

NAR 측은 집을 한 채 이상 매입한 구매자 연령이 지난 조사치인 58세에서 61세로 올랐으며 중간 가구 소득 역시 11만1700달러에서 11만4300달러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 이러 반복구매자는 첫 주택구매자보다 더 많은 다운페이먼트를 지불했으며 현금 구매도 많아 주택 시장 진입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주택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택 판매자가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권한도 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에 4주 이하로 나와 있던 주택은 일반적으로 매매 가격의 100%를 받았다.

이은영 기자

인터뷰

국회의장상 받은 황선영 옥타 지회장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 내년엔 꼭 통과시킬 것”



“미국에는 5만 명이 넘는 한국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이들의 취업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 상을 준 것 같습니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와 연합뉴스 공동 개최로 열린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 한국상품박람회'에서 국회의장상을 받은 황선영(사진) 월드옥타 부이사장 겸 뉴저지 지회장은 지난 2일 "올해 상·하원에 상정한 '한국인 전용 미 전문직 취업 비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 회기 종료로 폐기됐지만 분위기를 조성해 내년에는 꼭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K-취업비자'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전문 교육·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미국 정부가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월드옥타 회원인 재미 한인 경제인을 중심으로 출범한 '한미경제포럼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유학생의 상당수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인재들로 비자가 원활하게 나오면 구인난을 겪는 미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부이사장은 한국 대학생 등 청년들이 미국에서 인턴십을 하는 데 필요한 비자 발급 등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국제교육문화재단(ICEF)을 운영한다.

이 단체는 미국 국무부 인증기관으로 등록돼 있어서 '비자 스폰서' 업무를 맡고 있다. 한인이 운영하는 기관 가운데 국무부 인증을 받은 곳은 ICEF가 동부지역에서 유일하고, 서부 지역에 1곳이 더 있다.

그는 "한국 대기업은 최근 미국에

서 대규모 공장 설립 등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공장 등에서 기술자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법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3월부터 각종 포럼과 세미나 및 경제인대회 등을 개최해 법안 필요성을 호소해왔고, 한인 정치인과 한인 커뮤니티 등의 지원을 받아 연방 정치인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펼쳐왔다.

황 부이사장은 "내년도 하원 회기가 시작하는 2월에 이 법안을 다시 상정하기 위해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한인 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며 미국 내 21개 지회를 둔 월드옥타 회원들에게도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1974년 고교 재학 중에 가족 이민으로 미국에 건너온 그는 방턴 뉴욕주립대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대림산업 미국지사에서 근무하다 독립해 2004년부터 인턴십 에이전트 사업을 21년째 펼치고 있다.

황 부이사장은 "1만5000명에게 취업비자가 주어지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모국 청년의 해외 진출을 돕는 월드옥타의 위상이 커질 것이기에 더 열심히 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사참배 거부한 마펫 컬렉션... K컬처 산실로

프린스턴신학교 '코리아컬렉션' 사진·보고서 600개 박스 분량



'코리아컬렉션'에 전시되는 유물들. 독립신문(왼쪽)과 고종황제 사진. [연합]

"3월 4일 시내에 갔는데 거리에서 수천 명의 한국인을 봤다. 가게는 모두 문을 닫았다. 여기저기서 일본인들을 볼 수 있었다. 한국인들은 수시로 만세를 외쳤고 군인들은 그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달려들었다."

1919년 3.1 운동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평양 시내의 현장을 묘사한 글이다. 한국 신문의 스케치 기사도, 한국 작가의 르포도 아니다. 파란 눈의 선교사 사무엘 오스틴 마펫(1864~1939)이 쓴 보고서의 일부다.

마펫은 미국인 선교사다. 청춘의 끝물에 조선을 찾아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포교와 교육사업에 매진하다 노년에 일본 정부에 의해 추방됐다.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추방 후 3년 만에 그는 고향 땅인 미국에서 사망했다. 생애의 절반을 한국에서 보낸 셈이다.

그는 46년간 주로 평양에서 활동했다. 숭실대 확장으로, 평양신학대 이사

장 등으로 일하며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선교와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직접 사진도 찍었다. 그런 당대의 풍속과 시대의 공기가 담긴 대부분의 자료는 지금 미국에 있다. 프린스턴신학교에 있는 '코리아컬렉션'이다.

코리아컬렉션은 마펫 선교사가 반평생 모은 자료를 아카이브로 구성한 것이다. 그의 아들 사무엘 H. 마펫이 1997년부터 프린스턴신학교에 문서류·사진류·서적류 등 관련 자료들을 기증하기 시작해 2005년 컬렉션이 완성됐다. 코리아컬렉션을 담당하는 브라이

언 새틀러 프린스턴신학교 교수는 지난달 29일 한국 취재진을 만나 "북미에서 가장 많은 신학 자료 아카이브가 있는 곳이 바로 프린스턴신학교"라고 강조했다.

학교 측은 문서를 뿔뿔이 채워 밀면 30cm 크기에 담은 직육면체 모양의 박스 6000개에 종교 관련 문서를 보관 중이다. 이 가운데 10%, 그러니까 600개의 박스가 마펫이 모은 컬렉션이다. 자료의 종류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때 제작된 사진, 신문, 보고서 등 다양하다.

이 같은 코리아컬렉션은 대부분의 문서가 온라인으로 디지털화돼 신학도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공개돼 있다. 최근에는 실물도, 디지털 문서도 인기라고 한다. K컬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담당자들은 보고 있다.

코리아컬렉션을 담당하는 리더인 안테스키 프린스턴신학교 연구원은 "학생들이 리서치 용도로 많이 보는 것으로 안다"며 "실물은 여기 신학대 대학생들이 주로 보고 있고, 온라인 접속의 주체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401k 한도 500불 올려
연 2만3500불로

국세청(IRS)이 직장은퇴플랜인 401(k)의 2025년 최대 적립금 한도를 500달러 상향 조정했다.

IRS는 지난 1일 2025년 401(k) 적립

금 상한을 기존 연 2만3000달러에서 연 2만3500달러로 올린다고 밝혔다.

공립학교,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에 제공되는 은퇴연금 403(b)도 동일하게 2만3500달러로 인상됐다. 다만 개인은 퇴계좌(IRA)의 상한은 올해와 같은 7000달러로 묶였다.

조원희 기자

① 워싱턴중앙일보 광고·구독 : 703-281-9660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희스프링 아동가족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703-259-5617, 410-241-2520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메디케어!

풍부한 경험과 신뢰의 에이전트

프라임 보험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This is an advertisement.

프라임 보험(조앤김)
상담전화 **(703) 861-9923**
14641 Lee Hwy #D3, Centreville, VA 20121
7535 Little River Tupk,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2025 메디케어 변경 및 등록]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4년 10월 15일 ~ 12월 7일

2025년 플랜에 대한 상담 및 등록

- 눈높이 상담 • 쉬운 설명 • 보험료 및 의료혜택 비교

현재 메디케어 플랜 가입자 / 1960년생이신 분들 / 65세 이후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상담 내용	파트 A & B	파트 C	파트 D
	서플리먼트, 플랜 A,B,G,K,L,N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들	
	이중 특별 필요 플랜		메디케어 (파트 A, B) + 메디케이드 (모든 메디케이드 대상) 추가 혜택 VA 지역, MD 지역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Currently we represent [X] organization which offer [X] products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1-800-MEDICARE, or your local Statw Health Insurance Program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한스 핫딜 뉴욕 스페셜 록펠러센터, 베슬, 리틀아일랜드

\$149 티켓포함 1차 11/30(토) 당일 투어
2차 12/14(토) 투어



한스 뎡스기빙 특선

머틀비치 골프투어

NEW 라운딩코스-World Tour, Arrowhead, Pine Lakes
UPGRADE 해안가 리조트 호텔 SAND DUNES
11/28(목)-12/1(일) 3박4일 \$849 인솔자 김문배

마감임박

코스타리카

11/28(목)-12/1(일) 3박4일 \$1,200+항공

마감임박

한스 크리스마스 특선

라디오시티 라켓쇼 in NY

1차 12/11(토) 2차 12/19(목) \$199 티켓포함

마감임박

올랜드, 마이애미, 키웨스트

12/25(수)-12/28(토) 3박4일 \$1,895

직항항공포함

씨월드, 선셋크루즈, 헤밍웨이뮤지엄, 비즈카야 박물관

VISION OF THE SEAS 바하마 크루즈

8박9일 2025년 1/16(목)-1/24(금)

볼티모어 출발/찰스톤/올랜드/그랜드바하마 섬/낫쏘

\$1,099 (Inside Cabin) \$1,199 (Outside Cabin)

도움!
-찰스톤 투어
-올랜드 씨월드
-인솔자 동행

2025년 자연속에서 모험과 휴식을 함께 즐긴다!!

코스타리카

아레날화산/따바콘온천/하꼬비치/라빠스폭포가든/카누피 투어

4박5일 2/5(수)-2/9(일) \$1,990항공포함



데이빗한 재키조 조앤한 세라정 애나김 김문배

인솔자가 함께하는 한스여행

VA 한스 에이전트/로컬 투어 가이드 모집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atc.davidhan@gmail.com

HANS TRAVEL

hanstravelusa@gmail.com
문의전화 703.658.1717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npk., #201
Annandale, VA 22003

Worldwide 월드와이드 버스

버스가 필요할때? 한스관광에 문의하세요!

2024 한스 해외여행	인솔자
11/7(목)-11/19(화) 네팔 & 부탄 12박13일	조앤한
11/12(화)-11/21(목) 이집트와 나일강 크루즈	이빛한
11/28(목)-12/1(일) 뎡스기빙 코스타리카	세라정
12/1(일)-12/7(토) 과거로 가는 여행-쿠바	조앤한
2025 한스 해외여행	추천
1/27(월)-2/8(토) 북인도 & 두바이	재키조
1/27(월)-2/6(목) 북인도 9박10일	재키조
2/5(수)-2/9(일) 발렌타인 코스타리카	세라정
2/7(금)-2/20(목) 남인도 스리랑카	조앤한
2/11(화)-2/20(목) 이집트와 나일강 크루즈	데이빗한
2/23(일)-3/3(일) 페루일주	재키조
3/3(월)-3/17(일) 파타고니아 & 이과수 폭포	재키조
3/3(월)-3/13(목) 파타고니아	재키조
3/9(일)-3/29(토) 모로코, 튀니지와 몰타섬	조앤한
3/9(일)-3/19(수) 모로코와 사하라 사막 탐험	재키조
3/19(수)-3/29(토) 튀니지와 몰타 섬 여행	재키조
3/25(화)-4/6(일) 일본 맛여행+벚꽃 축제	재키조

4/9(수)-4/18(금) 낭만의 동유럽	세라정
4/16(수)-4/29(화) 시실리 & 이태리 하이лай트	재키조
4/21(월)-5/2(금) 스페인 & 포르투갈	애나김
4/22(화)-5/2(금) 고국의 봄, 맛과 멋여행	인솔자
4/29(화)-5/9(금) 서유럽4개국	세라정
5/4(일)-5/16(금) 그리스 & 튀르키예	조앤한
5/7(수)-5/16(금) 튀르키예 하이лай트	재키조
5/28(수)-6/9(일) 알프스 파노라믹 투어	재키조
5/29(목)-6/8(일)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조앤한
6/10(화)-6/19(목) 알프스 하이лай트	재키조
7/1(화)-7/14(일) 북유럽+발틱 1차	재키조
7/16(수)-7/29(화) 북유럽+발틱 2차	재키조
8/3(일)-8/15(금) 아프리카 케냐, 빅토리아 폭포	조앤한
8/4(월)-8/16(토) 아이슬란드 & 그린랜드	재키조
8/4(월)-8/11(일) 아이슬란드 7박8일	재키조
8/10(일)-8/16(토) 그린랜드 6박7일	재키조
9/4(목)-9/12(금) 발칸 달마시아 투어	세라정
9/14(일)-9/24(수) 서유럽4개국	애나김

한스 단독 미동부 투어

3명이상 출발가능

워싱턴 DC 당일투어 \$100
루레이동굴 당일투어 \$125

8명이상 출발가능

뉴욕! 뉴욕! 1박2일 \$399
캐나다 나이아가라 & 뉴욕 2박3일 11/25출발가능 \$650
캐나다 나이아가라, 뉴욕 & 브루클린 3박4일 \$899
미동부 캐나다 5박6일 \$1350
월요일 출발

미동부 캐나다 연합투어

미동부 캐나다 6박7일
일요일 출발 \$1,595
-나이아가라 호텔 폭포View
-모든일정 호텔 업그레이드

미서부 연합투어

서부 4대캐년 5박6일
일요일 출발 \$990+항공

미서부 일주 8박9일
일요일 출발 \$1,540+항공

엘로스톤 3박4일
2025년 5월19일 부터
매주 월, 금 출발
\$990+항공

코스타리카 연합투어

5박6일 \$1,250+항공
2명이상 출발가능/출발날짜 문의

2025 미서부/캐나다 여행

캐나다 록키

5박6일 인솔자:애나 김
7/17(목)-7/21(일) \$2,190항공포함

알래스카

6박7일 인솔자:세라 정
8/13(수)-8/19(화) 앵커리지 호텔 업그레이드3박 \$3,090항공포함

클래식 앤 리치~

가을학기 특집 연합 고국투어

[내륙 일주]
맛과 멋의 남도지역, 그리고 남해안!
낭만과 예술의 부산, 천년의 향기 경주
6박7일 \$1,590+항공
출발날짜 2024년11월14일

[전국 일주]
9박10일 \$2,350+항공
출발날짜 2024년11월10일

한국갈때 동남아 알뜰 여행

- 베트남 하롱베이 3박 \$590
- 베트남 다낭 3박 \$499
- 방콕 파타야 4박 \$590
- 싱가폴 3박 \$790
- 대만 3박 \$690
- 홍콩 2박 \$550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hanstravel.com 에서 더 확인하세요. 한스 여행사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상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타로 인한 가격 오류시 정가를 지불하셔야 하며 상품 예약 후 꼭 컨펌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수계열 위기… 회견에서 풀어야, 야당 추천 총리도 고려를”

박성민 정치컨설팅민 대표
야당 협조있어야 국정운영 가능
중임제 등 개혁논의도 고려를
지지율 30% 복원에 우선 집중해야



박성민(사진) 정치 컨설팅민 대표는 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지율 20%가 붕괴된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을 “2022년 대선 때의 선거연합을 무너뜨린 후유증”이라고 진단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의 결별 등으로 대선 때 우군이던 중도·리버럴·2030세대가 이탈했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위기에 빠진 윤 대통령의 선결 과제로 “지지율 30% 복원을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7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모든 게 내 탓”이라는 태도로 사과하고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 시국을 ‘레임 덕’(Lame duck·권력 누수를 맞은 대통령)을 넘은 ‘데드 덕’(Dead duck·사실상의 권력 공백)에 비유했다. 임기 전반기 지지율 20%대 대통령이 처음은 아닌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지지율이 20%대 이하로 내려간 적이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20% 아래로 간 적이 있다. 하지만, 두 대통령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며 전반기에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태로 임기를 마쳤다. 여소야대 임기를 마칠 윤 대통령과는 상황이 다르다. 외부로 나가면 안 되는 기밀이 쏟아져 나오는 말기적 현상이 임기 절반도 안 넘긴 시점에 나타나는 건 심각한 문제다.”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원인은 ‘한두 가지로 정의하기 어렵다. ①상징자본(‘공정과 상식’) 붕괴 ②극단적 우향우 ③김건희 여사 ④선거연합 해체 등을 꼽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상징자본을 획득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문제와 이후 당정 문제에서 그의 상징자본이 붕괴했다.”

“가장 큰 요인을 꼽자면 ‘선거연합 해체다. 2022년 6·1 지방선거 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초중반대였다. 그런데 지방선거 승리 후 윤 대통령이 곧바로 한 것이 야당 대표를 내쫓는 작업이었다.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무너지는 계기는 대선 승리를 만들어준 연합을 스스로 해체할 때였다. 자기가 앉아 있는 의자 다리를 스스로



김치 서로 먹여주는 여야 추경호 국민의힘(왼쪽)·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소관 앞에서 열린 평창고령지김장축제에 참석해 김장을 하며 서로 김치를 먹여주고 있다. [뉴스1]

톱질하는 셈이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대선 후 안철수·유승민 등 중진을 내쳤고, 지방선거 후에는 세대 연합으로 상징되던 이준석 대표를 축출했다. 그 과정에서 대선에서 표를 줬던 수도권·중도층·젊은 세대가 떠났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여러 번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충청권을 대표하는 JP(김종필), 대구·경북 세력을 상징하는 민정계를 쳤다. 1990년 민주자유당을 만들었던 3당 합당의 양축을 무너뜨린 거다. 정권 기반이 약해졌고, 이후 아들 현철씨 문제 등 위기 때마다 취약성을 드러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열린우리당을 만들어 호남을 배제했다가 흥

역을 치렀다. 2004년 총선을 승리했지만, 이후 호남이 외면하자 재·보궐선거에서 연패하면서 정권이 기울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환경은 임기 시작부터 끝까지 여소야대라는 점에서 훨씬 나쁘다.”

“한동훈 대표의 역할은 어떻게 보나. ‘사실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윤 대통령의 양해 없이 특검안에 찬성하면 보수 분열의 책임론에 휩싸일 거고, 반대하면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된다. 결국 풀어야 할 것은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과 친윤은 ‘대선 신승은 이준석, 총선 패배는 한동훈 때문’이라는 식이다. 하지만, 위기의 근본 원인은 윤 대통령과 친윤이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총선 패배, 윤심(尹心)과 여극난 여당 대표(한동훈)의 당선 등 민심의 경고등이 계속 울리지 않았다. 보수가 궤멸하게 됐는데 누구 하나 책임감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7일 회견이 중요하다.”

“7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화두를 내놔야 하나. ‘일단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는 인식과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김 여사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 전폭 쇄신이 나와야 한다. 최소한의 조건이다.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대응 수준을 보면 현재 대통령실의 기능은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다. 용산 보좌진은 교체해야 한다.”

“남은 후반기에 시급한 과제는. ‘일단 지지율 30% 복원에 집중해야 한다. 10~20%대 지지율은 보수층도 외면한 결과다. 김 여사 문제뿐 아니라 향후 어떤 위기도 감당하기 어렵다. 또한 여소야대 환경이라는 걸 직시해야 한다. 독재할 게 아닌 이상엔 결국 제1당의 협조를 얻어야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차기 총리를 야당에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정국 전환 카드로 개헌 논의를 적극 고려해 봐야 한다.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2032년은 개헌 적기다. 4년 중임제든 결선투표제든 함께 준비하자고 제안해 볼 수 있다.”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추진… 여당, 내년초 법안 발의 목표

국민의힘이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정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경태 당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은 5일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내년 초 개정

안 발의를 목표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9월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은 것에 맞

춰, 정년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현행 60세 정년이 유지되면 퇴직 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

다. 특위는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담보 ▶청년 일자리 감소 방지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청년 민심 이반 우려에도 정년 연장 추진을 발표하고 나선 것

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이 있다. 지난 9월 한동훈 대표가 유의동 여론 원장에게 정년 연장 관련 여론조사를 지시한 결과 찬성 여론이 과반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이 댕겨졌다. 윤지원 기자

전영현, 삼성 D램 개발방식 원점 재검토 지시

(삼성 반도체 수장)

기존 D램·차세대 D램 모두 대수술 ‘세계 최초’ 기록 5년째 멈춘 상황

‘30년 글로벌 1위’를 지켜온 삼성반도체 D램 개발실이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5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장인 전영현 DS(다바이스솔루션) 부문장(부회장)은 연말 인사와 조직개편을 앞두고 현행 D램 개발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산 중인 D램의 설계도 모두 재검토 대상이다. 지난 5년 동안 삼성 D램 개발의 실패를 인정하고, D램 설계부터 사실상 다시 시작

하겠다는 뜻이다. 반도체연구소와 메모리사업부 등 차세대 D램 개발조직 역시 큰 폭으로 개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부로 보냈던 D램 개발인력을 최근 다시 복귀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2019년 삼성은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 달성 목표를 세웠고, 이에 D램 개발 조직의 핵심 인력들이 파운드리 사업부로 옮겨갔다. D램은 데이터를 읽고 기록하는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다. 매출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주력 사업인 D램에서 부

진하면서 삼성 반도체는 올해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 연간 영업이익을 추월할 가능성이 커졌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선 공정 세대를 바꿀 때마다 집적도를 높여 더 작고 성능 좋은 D램을 만든다. D램 사업의 본질은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제때 개발해 경쟁력 있는 가격에 양산하는 데 있다. 삼성은 독자적인 차세대 D램 개발 역량을 앞세워 30년 동안 전 세계 시장을 지배했다. 하지만 2019년 3월 3세대 10나노급(1z) D램 개발을 끝으로 삼성의 ‘세계 최초’ 기록은 5년째 멈춘 상황이다. 1z 다음 공정인 1a D램 개발·양산 경쟁에서

2021년 미국 마이크론에 선두를 내준 삼성은 6세대(1c) 개발에서도 올해 SK하이닉스에 세계 최조 타이틀을 내줬다. 삼성 메모리사업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위기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지만 지난 5년 동안 실패했던 것이 본질”이라면서 “뿌리에 해당하는 D램 설계·개발에서 양산에 이르는 시스템에 탈이 났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지난 2020년 세계 최초 극자외선(EUV) 공정을 적용한 D램 양산 이후 설계와 수율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데 대한 자성(自省)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삼성이 차세대 D램은 물론, 이미 양산 중인 기존 D램까지 다시 설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내부에선 D램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전 부회장이 조강수

를 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조직문화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전 부회장이 조직문화에 대한 대대적 쇄신에 나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이를 위해 전 부회장은 인사를 앞두고 지난주부터 반도체 부문별 임원을 소집해 연세 토론회를 시작했다. 전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수천 단계의 반도체 공정에서 단 하나만 잘못돼도 정상에서 밀려날 수 있는 게 기술 산업의 냉혹함”이라며 “삼성전자가 얼마나 빨리 회복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향후 반도체 산업의 지형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권 기자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 질로우 프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김경아의 독점 COMING SOON LIST!!

1. 윗브리지 타운홈
2. 알렉산드리아 싱글홈
3.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4. 매나사스 타운홈
5. 버크 싱글홈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FAIRFAX REALTY SOUQ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2025 메디케어 플랜 가입 및 변경

One Stop Financial Services
UNI와 함께 하세요!!

최적의 메디케어 플랜을 찾는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메디케어 플랜 가입 및 변경, 전문가의 도움으로 더 쉽게!
상담에서 신청까지 무료! 라이선스 에이전트가 도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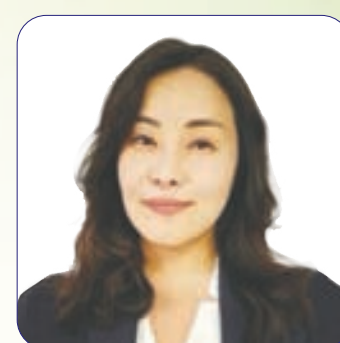
페어팩스, VA
703-865-8788
엘리콧 시티, MD
410-995-8074



문로리
703-895-7648



장미원
703-486-60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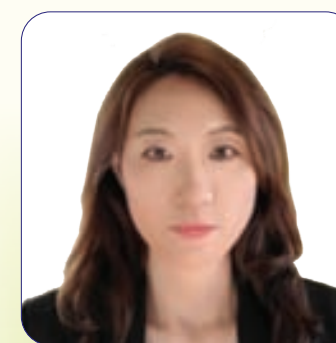


이린다
443-515-8522

리치몬드/
뉴포트 뉴스/
버지니아 비치, VA
804-464-3662



안은신
804-464-3662



이은경
804-299-1150



최비양카
757-869-0311

올바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올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원스탑 재정 서비스를 UNI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www.uniwfm.com

- VA 페어팩스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 VA 리치몬드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
- VA 뉴포트뉴스 700 Tech Center Pkwy. Suite 200, Newport News, VA 23606
- VA 버지니아 비치 249 Central Park Ave. Suite 300, Virginia Beach, VA 23462
- MD 엘리콧 시티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북, 미 대선투표 6시간 전 미사일 도발... 군 '현무·천궁' 맞대응

신형 ICBM 시험 닷새만에 SRBM 쏘아 이동식 미사일발사대로 기습 발사

북한이 미국 대선 본투표를 약 6시간 앞둔 5일 오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시험 발사한 이후 닷새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30분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며 "이들 미사일은 약 400km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최소 7발이며 최고 고도 약 100km를 기록했다고 공개했다.

합참 관계자는 "포착된 여러 제원을 고려할 때 600mm 대구경 방사포로 추정된다"며 "(600mm 방사포를) 기존엔 평양에서 북쪽으로 쏘지만, 오늘은 남쪽과 가까운 사리원에서 쏘는데 사리원에서 쏘면 한반도 남해안까지 거의 다 (사정권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북한의 스킵드 미사일기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사리원은 평양에서 남쪽으로 약 70km, 서울과는 직선 거

리로 약 150km 떨어져 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통상 발사하던 지역이 아니라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를 가동해 임의의 지역에 가사 발사했다"면서 "이는 남측에 대한 기습적인 전술핵 공격이 가능함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군 당국자는 "닷새 전 ICBM 발사가 미국 대선을 겨냥한 도발이라면, 오늘 SRBM 발사는 한반도 역시 위협의 사정권에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영정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실시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을 비

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김 부부장은 "미·일·한(미국·일본·한국)이 우리 국가의 문제에서 연합 공중훈련을 벌였다"며 "우리의 최신행 전략무기시험에 대한 '대응' '경고'라는 명목 하에 미국 전략폭격기 B-1B를 위시한 다종의 3국 전투기들이 투입됐는데, 이는 우리의 핵무력 강화노선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해 주는 또 하나의 완벽한 증명 사례"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미·일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신형 ICBM 화성-19형 발사에 대응해 3국 연합공중훈련을 했다. 흥민 통일연

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새 행정부에 바이든 정부와는 다른 대북 접근법을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군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빠르면 6일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II' 계열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천궁' 발사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2022년 10월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현무-II 계열 미사일을 발사했다. 당시 한·미 연합으로 에이태컴스(ATACMS) 지대지 미사일도 함께 쏘았다. 정영교·이유정·이근평 기자

푸틴, 최선희에 '1분 약속' 특별 대우... 러, 한국엔 "위험한 선택 말아야"

예정에 없던 만남, 북과병 배려인듯 안보리선 '우크라이나 지원' 경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공휴일인 4일(현지시간) 방러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났다. 지난달 29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최 외무상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것과 달랐다.

크렘린궁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푸틴 대통령은 최 외무상을 반갑게 맞이하며 약속을 청했고 이례적으로 약 1분 동안이나 손을 놓지 않은 채 대화를 나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이 공휴일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크렘린궁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나 약속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국민화합의 날'이라고 언급한 뒤 "휴일에 친구를 만나는 것은 아주 좋은 전통"이라며 최 외무상을 반겼다. 최 외무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진정 어리고 따뜻하고 우호적인 인사를 전달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말했다.

예정에 없던 이날 면담은 북한군 파병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특별 대우'이자 지난 1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승리의 그날까지 언제나 러시아 동지들과 있을 것"이라고 말한 최 외무상에 대한 '외교적 대우'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군 측에서 북한군과의 첫 교전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크렘린

궁은 이날 면담 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면담에선 북한군 파병,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에 따른 협력 방안 외에 김 위원장의 러시아 답방 문제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

대신 러시아는 지구 반대편 뉴욕에서 한국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안나 예스티그네예바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는 4일 안보리 회의에서 "서울에 있는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한국이 미국의 압력으로 독립성을 빠르게 잃어가면서 한국의 국익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한국 동료들이 다시 한번 숙고한 뒤 위험한 길을 선택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 중인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배치된 북한군 병력이 2000명 늘어 1만명으로 과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군이 "수일 안에 전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할 경우 "그들은 합법적인 군사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다만, 밀러 대변인은 북한군이 이미 교전에 들어갔느냐는 질문에 "이미 전투를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면서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같은 날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저녁 연설에서 쿠르스크 주둔 북한군 병력 규모를 1만1000명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대통령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유산취득세로 전환 추진"

윤정부 2년반 주요정책 성과보고 "상속세 자녀공제도 대폭 늘릴 것" 원전 생태계, 11조 일감 공급하기로 1인당 GNI, 일본 추월 등 성과도 강조

대통령실이 5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해 낡은 세금 제도를 장기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 2년 반: 주요 정책 성과 보고' 브리핑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 및 자녀 공제 구간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상속세와 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현재 상속세제는 1950년대 만들어졌고, 우리와 같은 세금 체계는 4개국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며 "일단 유산취득세 형태로

는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세로의 전환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준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긴 뒤 이를 상속인 여럿이 연대 책임으로 내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에 반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인이 받는 재산 가액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또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이를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걸로 바꾸는 게 '자본이득세' 방식이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11월 10

일)을 앞두고 정책 성과 홍보를 강조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경제, 사회,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4+1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저출산 대응) 분야에 걸쳐 18대 핵심 성과도 제시했다. ▶ 지난해 사상 최초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일본 추월 ▶ 지난해 역대 최고 고용률(15~64세 기준 69.2%)과 최저 실업률(2.7%) 달성 ▶ 올해 역대 수출 최고치 경신 확실히 ▶ 2022년 4월 대비 지난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8.3% 하락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 중단됐던 원전 건설(신한울 3·4호기) 재개와 기존 원전 10기 '계속 운전' 절차 추진 등을 통한 원전 르네상스 등이 대표적이다.

성 실장은 "원전 산업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11조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며 "특히 SMR(소형모듈원자로)을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의 원전 계속운전 허가 기한도 최대 20년까지 확



성태윤 정책실장(가운데)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반: 주요 정책 성과 보고'를 주제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으로 적시에 계속운전 심사 신청을 하지 못해 안정적인 전력 운용이 더 악화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운전 허가 기간 20년은 하나의 안으로, 우리나라 계속운전 심사 제도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너무 강한 기준"이라며 "안전성을 담보하는 가운데 계속 허가를 간소하게 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소수 주주 이익 보호를 내세우며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데엔 이의가 없지만, 지금 제기되는 상법 개정이 최선인지는 확신이 어렵다"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주주 간 갈등이 수가 될 수 있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허진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헬렌 서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 ▶ 디씨 콘도 렌트, 스튜디오 \$2100 아메리칸 대학, 조지타운 대학, 조지왕스턴 대 차로 10분거리
- ▶ 스텔링 2024년 지어진 새 콘도 \$2800 방2 + 화2 즉시 입주 가능
- ▶ 덤프리 타운하우스 \$2,350 방3, 화2.5, 즉시 입주 가능
- ▶ 우드브리지 콘도 \$2,800 2005년 지어진 새 콘도 방3 + 화2, 차고 1 게이트 커뮤니티 넓고, 밝은 깨끗한 집, 즉시 입주 가능
- ▶ 타이슨코너에 인접한 타운하우스 비엔나 \$3,300 방3+ 화3.5, 지하실 넓고 작은 뒷마당 겸비, 즉시 입주 가능

독점 리스팅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

▶ 앰플러스 부동산 대표 / 약착같은 부동산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대통령, 질문·시간제한 없이 '끝장회견' ... 대국민 사과도 검토

내일 회견서 명태군 등 입장 밝혀 인적 쇄신·개각 수용 여부도 촉각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7일 담화·기자회견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10%대로 내려앉은 윤 대통령 지지율을 회복할 새로운 돌파구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전날 밤 전격적으로 앞당긴 것도 이런 위기의식이 반영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회견 형식부터 바꾸기로 했다. 이전과 달리 회견 시간과 질문 개수,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는 ‘무제한 끝장 회견’을 하기로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맹탕 회견은 오히려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대통령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과 8월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 등으로 분야와 시간을 제

한해 질문을 받았다. 김건희 여사 문제 등 민감한 정치적 질문의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 이를 풀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어떠한 질문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소상히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닌 국민이 듣고 싶은 대답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대국민 담화도 30분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명태군 녹취록과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허심탄회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법적 문제를 떠나 정치적 논란이 된 점에 대한 유감과 사과 표정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명씨와의 관계를 녹취록이 아닌 기억에만 의존하고 있는 점은 참모들에게도 고심거리다.

김 여사 문제의 경우 곧 공사가 마무리되는 제2부속실 설치와 맞물려 외교 활동 외에 다른 대외 활동은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어떤 방식이든 합의해 오면 임명할 것”이란 기존 입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김 여사가 내주 순방에 동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적 쇄신 및 개각과 관련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용산도 올해 말에 임기가 2년을 넘은 장수 장관 교체는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하는 즉각적 쇄신과는 온도 차가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 부분은 한 대표가 너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개혁은 반드시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포기했다”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이뤄내고 자유와 번영의 길을 열어가겠다”며 재차 4대 개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태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김현동 기자

주윤야한 낮엔 친윤계, 밤엔 친한계 행보 ... 친윤계 '탈윤' 움직임

(畫尹夜韓)

“한동훈 대표 말 중에 틀린 말이 어딴냐.”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TK(대구·경북) 중진 A의원이 최근 비한동훈계 의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를 대통령실로 불러 그렇게 훌륭한 것은 잘못”이란 말도 덧붙였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의원은 5일 통화에서 “자신이 더는 ‘친윤’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들렸다”고 전했다.

여권에서 친윤계의 ‘탈(脫)윤’ 조짐

이 일고 있다. A의원과 영남 재선 B의원 등이 자주 언급된다. B의원은 최근 주변에 “한 대표가 주장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윤 대통령이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한 대표의 주장과 흡사한 논리를 펼친다고 한다. 이외에도 “내가 왜 친윤이냐”며 손사래를 치는 의원도 드물지 않다.

낮엔 친윤, 밤엔 친한계(친한)계 행세를 하는 이른바 ‘주윤야한(晝尹夜韓)’ 사례도 등장했다. 조선 비례대표

인 C의원이 대표적이다. 지난 7·23 전당대회 때 한 대표 캠프에 보좌진을 파견했던 C의원은 그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철수시켰다. 주변에 “한 대표를 지지한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한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되자 캠프 해단식에 얼굴을 내밀어 뒷말을 낳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D의원이 최근 친한계 모임에 참석한 것을 두고선 친윤계에서조차 “충격”이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모임 참석 이후 그는 주변

에 “단순히 한 대표와 식사하는 자리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지만, 친윤계의 시선은 굵지 않다.

탈윤 움직임을 두고 당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면서 영예로웠던 친윤 딱지가 멍에가 되자 나타난 현상”이라고 자조했다. 다만, 이들은 조심스럽게 탈윤 행보 중이다. 여기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경험이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대통령실 출신의 여권 인사는 “친윤 딱지를 족쇄로 여기지만,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벗어던질 경우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지는 게 두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임기가 절반가량 남은 것도 이들의 공개 행보를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한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척을 지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친한계에선 “예산 정국이 마무리되는 12월 이후 의원들의 탈윤 및 친한계 합류 흐름이 커질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탈윤을 의심받는 인사들이 최근 들어 한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보수 진영 잠재 대선 주자에게 만나자고 요청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한다.

김기정·윤지원 기자

명태군 8일 검찰 출석 ... 대검, 능장수사 비판에 검사 4명 보강

사실상 특별수사팀 체제로 전환 수사 의뢰 11개월만에 본격화 맞춤형 여론조사 등 관련 의혹 조사

‘정치 브로커’ 명태군씨가 오는 8일 오전 10시 불법 여론조사 및 돈거래 의혹과 관련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이날 명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세비 약 9000만원을 받은 경우 등을 조사할 방

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씨 조사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수사를 의뢰한 뒤 2월 조사에 이은 두 번째 조사다.

검찰은 명씨를 상대로 김 전 의원에 게 수습차례에 걸쳐 세비를 받은 이유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맞춤형 여론조사’를 실시한 배경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특히 세비 9000만원을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에게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요청한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명씨 소환조사를 앞두고 검찰은 수사팀 인력을 보강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기 위해 체제 정비에 나섰다. 창원지검은 지난달 대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에서 공안담당 검사를 각 한명씩 파견받아 현재 총 7명의 검사가 수사 중이다. 이에 더해 대검찰청은 부산지검·울산지검·서울동부지검 등에서 4명의 검사를 추가 파견키로 했다. 2019년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특별수사단’의 검사가 9명이었던 걸 고려하면 사실상 특별수사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검찰의 대규모 수사 인력 보강은 ‘능장수사’란 여론의 비판 때문이다. 창원지검은 당초 명씨 사건을 소속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지난 9월 초 형사4부로 옮겼다. 수사팀은 지난 9월 30일 경기도 고양과 경남 창원·김해에 있는 김 전 의원과 명씨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본격 수사에 나선 지 한달 밖에 안 됐다. 그 사이 녹취록 제보와 국정감사 증언이 이어지며 의혹은 윤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한 이슈로 커졌다.

다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바탕

으로 윤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녹음된 시점은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로 공무원 신분이었다기 때문이다. 또 취임 이후에는 재임 동안 불소추 특권으로 보호받는다.

영부인의 경우 불소추 특권 등은 없지만, 공무원이 아니라 정치자금법·선거법 등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야권에서는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 승리 후 돈을 받고 이듬해 총선에서 공천을 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수뢰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2020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창원=안대훈 기자, 양수민 기자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Regina Domingo
Esq.



Chris Shin
Esq.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혈관이 부르는 첫번째 이름

- 전통솔잎으로 연구 개발된 세종송보감
- 고농축캡슐 타입으로 개발된 GMP 기준 솔잎농축캡슐
- 임상으로 인정되고 식약처(KFDA)가 인정된 건강기능식품

세종 송보감

- 혈액순환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분
- 당뇨, 혈압, 고지혈증 등 혈관계 건강이 필요한 분
- 혈액순환, 혈관청소가 필요한 분



문의 (703) 256-7671 | www.sejongbiotech.us

2000명 증원? 9개월간 의사 파업? ... 외국의사, 두번 놀랐다

독일·대만·일본이 본 한국 의정갈등
“대만, 건보 지출 고려해 점진적 증원
“의사 부족은 수가 높여서 해결해야”

중앙일보는 지난 9~10월 독일·대만·일본의 비급여 의료 관리 실태를 취재했다. 세 나라 의사들은 한국의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대만 위생복지부(한국의 보건복지부) 부서장을 지냈고 대만 건강보험을 설계한 양한주안 대만의원협회(한국의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를 합한 조직) 명예이사장은 “왜 한 번에 2000명을 늘리려고 하느냐”며 증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만 의대 정원은 1990년대 초 1000명, 지금은 1300명”이라며 “위생서(지금의 위생복지부) 부서장으로 재직할 때 의대 증원 요청을 거의 다 거부했다”고 말했다. “의사가 증가하면 건보 재정 지출이 당연히 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우이창 타이베이보훈종합병원 부원장(국립양명교통대학 교수, 내과 의사)은 의대 증원의 세 가지 원칙을 내놨다. 그는 “건보 지출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늘리고, 전체 숫자 증가보다 진료 과목별로 엄격히 관리해야 특정 진료 과목의 의사 부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3~10년의 의무적으로 근무 의사를 양성하는 국비 유학생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 부원장도 국비 유학생 출신이다.

리처드 우 대만사립병원협회 비서장(이사장)은 “대만도 비급여가 많은 안과·성형외과 등으로 의사가 몰려, 외과 같은 데에 의사가 부족하다”면서도 “수가를 높여서 해결할 문제이지 의대 정원을 늘릴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들은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리 부원장은 “대만 의사는 사회적 지위가 한국·일본처럼 높다. (그리 인정해 주는) 이유는 도덕적 의무 때문”이라며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항의 시위를 한다면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볼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의사의 소득이 대만보다 훨씬 높다. 소득이 특정 수준을 넘는 순간 자신의 이익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 뭉친다”고 덧붙였다.

양 명예이사장은 “의원급 의사 시위는 있었지만 2, 3차 병원은 없다. 대형병원 파업에 누가 동의하겠느냐”고 말했다.

리처드 우 비서장은 “한국 상황을 보면 의사가 그런 용기를 내 정부에 대응한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오래 하는 것도 대단하다”며 “대만 의사는 파업하면 사회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만에서는 1000~2000명의 의사가 수가 계약이나 의약분업(1997년) 시행 때 시위를 한 적이 있지만 최근 10년에는 없었다고 한다.

재일교포 신경내과 의사인 신용문 이사장은 “일본의사회는 정부에 요구는 하지만 스트라이크(파업)는 안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일본의 지역사제 같은 제도를 왜 도입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고베의 개업의사 스기모토 이사오 원장도 “의대 증원 한다고 한국처럼 데모하는 일은 일본에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독일 본의 정형외과 개업의사 문병진 원장은 “한국에서는 높은 소득을 기대하면서 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독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정중훈·남수현 기자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눈 쌓인 설악산 ... 오늘은 더 춥다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5도를 기록한 5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목도리를 두른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오른쪽 사진). 왼쪽 사진은 강원도 설악산 중청대피소 일대에 눈이 내린 모습. 기상청은 오늘(6일) 아침 최저기온이 -1~9도로 쌀쌀하겠다고 예보했다. [뉴스1]



광고주에 98만명 민감정보 넘긴 메타, 과징금 216억

“종교·정치관 등 무단수집·제공”
개인정보위, 8번째 법적 제재

메타가 페이스북 국내 이용자 98만명의 정치·종교·결혼관과 같은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광고주에게 제공한 혐의로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20년 메타에 첫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 이후 8번째 법적 제재다. 지금까지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만 731억원에 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에 과징금 216억1300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

는 2020년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해 과징금 처분을 처음 받았던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메타는 페이스북 프로필에 나오는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정치·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해 광고주에게 제공했다. 이를 약 4000여개 광고주가 사용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페이스북 프로필에 종교·정치관 등을 입력할 공간을 마련해 이용자가 써놓게 했다”며 “이에 맞춰 유사 광고 카테고리를 9만여개 만들고 타깃 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가 특정 정당이나 단체에 관심 있다고 입력하면 해당 정보를 받

은 광고주가 관련 집회나 단체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를 보내는 형태다. 또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 클릭한 광고 등 행태정보를 분석해 특정 종교·동성애·트랜스젠더·북한이탈주민 등 민감정보 관련 주제로 광고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봤다. 보호법은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는지 지속해서 점검하는 한편 국내 이용자를 상대하는 글로벌 기업에 예외 없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콩을 발효해 된장과 간장을 만들어 먹는 한국의 장(醬) 담그기 문화(영문 명칭 ‘Knowledge, beliefs and practices related to jang making in the Republic of Korea’)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전망이다.

5일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따르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심사해 ‘등재 권고’ 판정을 했다. 평가기구가 ‘등재’ ‘정보 보완(등재 보류)’ ‘등재 불가’ 등으로 구분하는 심사결과는 본회의에서 뒤집히는 일이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장 담그기 문화는 12월 2~7일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에서



콩을 발효해 된장과 간장을 만들어 먹는 한국의 장 담그는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다 음달 등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열리는 제19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가 확실시된다. 장 담그기 문화는 장이라는 음식뿐 아니라 재료를 준비해 만드는 전반적 과정을 아우른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장을 만들어 즐겨 먹었다고 알

려져 있고 콩을 발효해 먹는 문화권 안에서도 중국·일본 등과 제조법 차이를 보인다.

특히 메주를 띄운 뒤 된장과 간장이 라는 두 가지 장을 만들고, 지난해에 사용하고 남은 씨간장에 새로운 장을 더하는 방식은 한국만의 독창적 문화로 여겨진다. 이런 점에서 2018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최근 인기를 끈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서도 주재료 대결에서 ‘장 트리오’(된장·간장·고추장)가 등장하는 등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이다.

평가기구 측은 ‘장 담그기 문화’와 관련해 “된장, 간장, 고추장과 같은 발효

장류는 한국 식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식품”이라면서 “한국 식단에 중요한 영양 균형을 제공하는 장류는 각 가정의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고, 전승 노력도 공동체 안에서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는 한국의 23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년)을 시작으로 ‘아리랑’(2012년), ‘김장문화’(2013년)와 가장 최근에 등재된 ‘한국의 탈춤’(2022년)까지 22건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프랑스 등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목을 등재했다.

강혜란 문화선임기자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GALAXY REALTY

2024 여름 마켓에 울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매매 / 렌트	금액	설명	주소	기간	세입자	
★ 주택	McLean, VA SOLD	\$900,000	*계약 후 10일내 세입먼트 완료 현재 3년 렌트 (\$4,250) 렌트 끼고 살 투자자. 매달 25일경 기관에서 다음 달 렌트비를 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함	8*03 Fallstaff Rd, McLean, VA	1년	Non Korean
	Fairfax, VA	\$3,500	Mantua ES, Frost MS, Woodson HS 권 싱글하우스 렌트. 부엌, 화장실 upgrade 된 집, 10월 1일 입주 가능	82* Wakefield Dr, Arlington, VA	3년	주재원
★ 사업체	델리샵 (DC)	\$150K	DC 내 좋은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 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운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822*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Non Korean
	세탁소 (MD)	\$300K	MD, 코로나 때 주변 세탁소 문 닫아 장사가 더 잘되는 세탁소	1*11 Fallbrook Ln, Vienna, VA	2년	주재원
				1*02 Abbey Way, McLean, VA	3년	교민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www.naturadent.net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invisalign

Science in Every Smile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더더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Financial Group



메디케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티모시유 보험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현재 가지고 계신 플랜을 다른 플랜으로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
- 메디케어가 처음이신 분들 (1959년~1960년생)
- 65세 이후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 (듀얼 플랜)
-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들
- 처방약 절약이 필요하신 분들 (LIS)

파트 A & B / 파트 C (어드밴티지) / 파트 D (처방약)
메디갭 (서플먼트) / 듀얼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연금 보험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평생 연금으로 고객님의 노후를 든든하게 계획해드립니다!

각 고객에 맞는 연금보험을 정성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생명 / 암 보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건강 보험 (오바마케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 의료 보험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개인 맞춤
진단!



티모시유 보험

TEL. 703-961-8811
email: info@yoofg.com

5900 Fort Dr. Suite 407, Centreville, VA 20121

우리말 바꾸기

거뒤들었다

다음 중 맞는 표현을 고르세요.
 1. 세금을 걷어들였다 2. 세금을 거뒤들었다

여러 사람에게서 돈이나 물건 등을 받아서 들여오거나 좋은 결과 또는 성과 등을 얻어 낸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건어들이다' '거뒤들이다' 어느 것을 써야 할지 헷갈린다. '건어들이다'와 '거뒤들이다'의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 표기에서도 혼동이 오는 것으로 보인다.

'거뒤들이다'의 발음은 [거뒤드리다]이지만 이를 [건드리다]와 같이 발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소리를 따라 '건어들이다'로 적는 경우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바른 표현은 '거뒤들이다'이므로 잘못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거뒤다'의 준말은 '건다'이다. "답안지를 거뒤어갔다"는 "답안지를 건어갔다", "회비를 거뒤었다"는 "회비를 건었다"로 바꿔 쓸 수 있다.

따라서 '건다'를 활용한 '건어'에 '들이다'를 붙이면 '건어들이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표현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은 이를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거뒤어들이다'의 준말인 '거뒤들이다'만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 즉 '거뒤어'를 줄인 '거뒤'에 '들이다'를 붙인 형태인 '거뒤들이다'가 바른 표현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운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기고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우주와 소유욕



손국락
 보잉사 시스템공학 박사
 라벤데 겸임교수

지난 10월 14일 미항공우주국(NASA) 제트추진연구소는 목성의 얼음 위성 유로파가 생명체가 살만한 환경을 갖췄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우주선 '유로파 클리퍼(Europa Clipper)'를 발사했다. 우주선은 앞으로 5년 반 동안 태양계를 가로 지르며 총 29억km를 날아간다.

하지만 성베드로 성당의 돔이 우주라면 지구와 유로파 간의 거리는 그 돔을 떠도는 가장 가까이 있는 두 면지 사이의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137억 년 정도의 나이를 가진 우주는 어떻게 생성되었을까.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무(無)의 상태에서 탄생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뉴욕 헌터 대학의 에드워드 타이론 교수였다. 그 이유는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모든 별과 은하, 그리고 행성은 회전운동을 하는 반면에, 정적 우주가 회전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우주가 무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공은 회전하지 않으므로, 진공으로부터 탄생한 우주는 회전운동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1920년대에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로스앤젤레스 윌슨 천문대에서 천체를 관측한 후, 모든 은하가 빠른 속도로 서로 멀어져가는 '팽창하는 우주' 이론을 발표하여 빅뱅이론(Big Bang)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그 후로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점점 빠르게 팽창하면서 차갑게

식어 모든 생명체가 사라져버리는 '거대한 동결'의 시점에 이르게 된다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타이론 교수의 '무에서 탄생한 우주'와 허블의 '팽창하는 우주'를 생각해 보면,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된 후 끝없이 팽창하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없는 무(無)의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인간은 이런 찰나의 삶 속에서 여전히 소유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시각은 달랐다. 그들은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큰 약점이라고 믿었다. 백인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내준 땅을 자기들 소유라고 주장하며 울타리를 만들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러자 원주민 추장은 백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이 소유라고 부르는 그것이 무엇인가? 땅은 누구도 소유할 수 없다. 땅은 우리의 어머니나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자식들인 동물과 새, 물고기, 그리고 모든 인간을 먹여 살린다.

숲과 강물 등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모두에게 속한 것이며, 누구나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어떻게 한 인간이 그것들을 오직 자신의 것이라고만 주장할 수 있는가?"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필요한 것 이상 갖는 것을 죄악이라 여겼으며, 인간의 필요에 따라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분임을 깨닫고 그 질서에 순응하는 길을 선택했다.

히말라야의 작은 왕국 부탄에서는 '원하다'라는 단어와 '필요하다'라는 단어가 같다고 한다. 어떤 것을 원한다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필요하지도 않은데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겼다.

그렇다면 소유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끝없이 팽창하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동결'의 시점으로 돌아가는 우주 속에서 나의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1000억개의 별을 거느린 은하계가 또 다른 1000억 개의 은하계들과 함께 무한히 팽창하는 우주 속의 나. 그것은 우주를 떠도는 하나의 미세한 먼지 정도의 크기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찰나의 삶을 살아갈 때, 과연 무엇을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지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가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열린광장

기회를 놓치지 말라



윤재현
 전 연방공무원

모처럼 다섯 손자와 손녀가 한자리에 모였다. 할아버지의 위엄을 자랑하듯 큰기침을 하고 나서, "너희들은 공부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힘주어 말했다. 요정하지 않은 충고였다. 나는 더듬거리는 영어로 말문을 열었다.

황해도 몽골포가 고향인 할아버지는 열일곱 살 때 혼자 월남한 오리지널 탈북민이다. 일명 실향민이라고 부른다. 함경도 사람들은 떠돌이한 흥남 철수 작전으로 부산으로 피난 갔고, 황해도 사람들은 조용한 서해 철수 작전으로 군산이나 인천으로 가서 정착했다.

인천과 부평에는 미군 부대가 많아 취업이 쉬웠다. 장교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을 시작했다. 영어를 잘해야 진급할 수 있었다. 'Swim or sink(수영하지 않으면 익사하다)'는 심정으로 공부해 통역사 시험에 합격했다. 미군 부대에서 수송부 배차원이 되었다. 하는 일은 운행을 맡부하고, 한국인 운전사를 위한 통역 서비스였다.

하루 24시간 운영하는 배차 사무실에서 두 번째 당번을 자원하여 오후 6시부터 12까지 일을

했다. 밤에 일하고 낮에 공부할 기회가 왔다. 외국어대학 영어과에 입학했다.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다.

할아버지는 공부했는가. 하지 않았다. 직장에서 통역할 만큼 영어 구사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었다. 공부하지 않아도 학점을 따는 데 문제가 없었다. 땅 짚고 헤엄치기였다. 필요한 출석 일수만 채우고 등교하지 않았다.

사실은 인천에서 기차 통학이란 쉽지 않았다. 밤 한 시에 퇴근하여 세, 네 시간 자고, 한 시간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여 이문동까지 한 시간 버스를 타야 한다. 항상 피로하고 잠이 모

자랐다.

대학에서 중요한 것은 과외 활동이다. 외대 학보 발행, 모의 유엔 총회, 동시통역 서비스와 국제 웅변 클럽 훈련 등 영어 구사력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할 기회를 모두 놓쳤다. 그때 동시통역 서비스를 연습한 친구는 나중에 국제무대에 진출했다.

할아버지가 그때 영어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좀 더 상위급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은퇴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할아버지는 국방부 민간인 직원으로 겨우 대위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은퇴했다. 내가 존경하는 연방정부 고위 공무원으로 고 전신에 전 노동부 차관보, 그리고 강석희 현 조달청 서부 지역장이 있다.

너희들에게 말한다.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 없다(No cross, no crown)'이다. 공부하는 것은 힘들다. 그러나 참아야 한다. 할아버지처럼 한번 오판하면 그 결과는 심대하다.

마치 철로의 각도가 벌어지면 무한하게 벌어지는 것처럼.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참고, 상가

황계실 부동산 "최고 전문가" 세미나

일시 2024년 11월 9일 오전 10시
장소 14641 Lee Hwy. #109, Centreville (누보 하우스 센터빌 오피스)
예약 황계실 (571) 239-6054 (선착순 20명)

황계실 브로커
 내집 동네 최고가로 파는 노하우 (최저 비용, 최대 효과) 2025 집 값 어떻게 될까? 내집 언제, 어떻게 사야할까?

신디 양
 StateFarm 대표 사고와 클레임이 증가하는 요즘, 내 집 보험 점검 필수

데니얼 유
 내집 지붕 진단 및 라이선스 소유 업체 선정해야 하는 이유 / 방법

이성호
 Eruda Design & Build Inc. (Class 'A License) 대표 겨울철 내집 관리 요령

부동산 전문 브로커 황계실 571-239-6054

비즈니스의 안전한 길잡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재벌집' 비웃던 '테이크 원' 실패... 그렇게 '진짜'를 찾았다

'흑백요리사' 김학민 PD

평범해서 평범하지 않은 사람. 넷플릭스 한국 예능 사상 처음으로 연속 3주 글로벌 1등을 한 '흑백요리사' 김학민 PD(41) 얘기다. '흑백요리사'가 절정의 인기를 끌 당시 서로의 스케줄을 조율 해가며 약속을 잡고 직접 만나기까지 3주의 기간이 있었는데, 하루가 멀다고 연일 그의 인터뷰가 쏟아졌다. 화제의 출연자 섭외부터 제작 과정, 촬영 뒷얘기 등 시시콜콜한 나온 얘기가 없었다. 큰일 났다 싶었지만 일단 만났다. 사연 없는 사람은 없었을까.

그런데 첫인상이 너무 평범했다. 정말 아무 사연이 없을 것만 같았다. 알 없는 감정 팔레 안경으로 얼굴에 살짝 흰줄 걸 빼고는 외모도 전혀 튀지 않았고, 목소리 역시 톤의 높낮이 없이 차분했다. '싱어게인'(JTBC·2020) 등 화제의 예능 PD로 이름을 이 분야 스타 PD로 꼽히는 데도, 화려한 연예인 인맥을 자랑하며 스스로 연예인급 스타성을 발휘하는 나영석·김태호 같은 예능 PD와는 전혀 다른 결의 사람이었다. 무슨 무슨 사단이라 불리는 연예인 군단을 몰고 다니는 이들과 달리, "친한 연예인 없다. 출연자들과는 거리를 두는 편"이라고 잘라 말할 정도였다. 대단한 카리스마도, 그렇다고 과거 요리 예능을 한 경험도 없는 그가 어떻게 한국 요식업의 대가 백종원이나 한국 유일의 미쉐린 3스타 셰프 안성재 같은 자기 철학 확고한 인물(심사위원)과 100명의 요리사를 맛깔나게 조리해 한국 예능 최초로 넷플릭스 비영어 TV 시리즈 3주 연속 1위의 화제작 '흑백요리사'를 만들 수 있었을까.

알고 보니, 그의 성공엔 참담한 실패(넷플릭스 예능 '테이크 원')가 먼

저 있었다. 지난달 29일 4시간 동안 들은 예능 인생을 그의 시각에서 정리했다.

'재벌집 막내아들'을 몰라보다니
아픈 손가락.

'흑백요리사'에 앞서 넷플릭스와 처음 작업했던 예능 '테이크 원' 얘기다. 넷플릭스 코리아 첫 음악 예능이자 첫 돌비 애트모스 시스템(입체 사운드를 구현하는 기술) 도입 등 유달리 '최초' 시도가 많았던 초대형 스케일의 기대작이었다. 청와대에서 원테이크로 이어진 비의 공연, 6년 공백을 갠 임재범, 비행기까지 동원한 악뮤, 한강에 배 띄운 박정현 등... 역대급 무대라며 언론 보도도 이어졌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전 세계 OTT 순위를 비공식 집계하는 '플릭스 패트럴'에서 '테이크 원'은 넷플릭스 코리아 예능 사상 가장 낮은 순위인 92위로 데뷔해 시청자 관심 밖으로 사라졌다. 심지어 지난 7월 넷플릭스 예능 라인업을 소개하는 '넷플릭스 예능 페스티벌'에서 다른 예능 PD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을 때, 넷플릭스는 자기네 플랫폼에서 제작한 '테이크 원'만 쪽 빼놓고 내 전작을 소개했을 정도다.

이런 결과는 솔직히 상상도 못 했다. '테이크 원' 마무리 작업 중 종종 넷플릭스를 찾았는데, 후반 작업 중이던 한 예능 영상을 먼저 본 적이 있다. 겉으로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그림은 선데 서사가 없어 잘 되기 어렵겠네. 딱 봐도 돈 많이 들인 거 같은데 큰일이다" 싶었다. 이 예능? 넷플릭스 코리아 예능 최초로 글로벌 1위를 한 '피지컬100'(2023년 1월 공개)이다.

이런 일도 있었다. '테이크 원' 공개 당일인 지난 2022년 10월 서울 메가박스 성수에서 제작발표회를 했는데, 마

침 한 달 뒤 방영할 JTBC 드라마 관련 무슨 행사도 있었다. 당시 다른 회사 소속이었지만 JTBC 공채 PD 1기(2011년)로 친정에 대한 애정이 여전했기에 드라마 제목만 듣고 혼자 친정 걱정을 한참 했다. '제목이 너무 후지다. 송중기가 어떻게 이런 드라마를 택했을까. JTBC 요즘 힘들다는데 어떡하냐.' 이 드라마 제목? 최종화 시청률 26.9%로 비정상과 드라마 역대 2위를 기록한 초특급 화제작 '재벌집 막내아들'이었다.

'테이크 원' 덕분에 두 가지를 배웠다. 첫째는 '겸손'이다. 이젠 절대 어설픈 선입견으로 콘텐츠를 비평하지 않는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때려 박아 만든 '테이크 원'의 실패 이후 '털어내기'라는 더 큰 교훈도 얻었다. 오프닝만 3개 만든 '테이크 원'과 달리 '흑백요리사'는 '오프닝 건너뛰기'를 할 수 없다. 아예 만들지 않았으니까.

두 거인의 등에 올라타서

백종원 대표는 새로운 사람과는 잘 작업하지 않는다. 본인 말이 조금이라도 다른 뉘앙스로 나갈까 봐 종이 매체 인터뷰는 웬만해선 안 할 만큼 까다롭다. 그런 백 대표를 음악 예능 위주로 경력을 쌓은 내가 어떻게 섭외했는지 궁금해들 한다.

솔직히 말하자면, 넷플릭스 힘이다. 회사(스튜디오 슬랩) 윤현준 대표가 넷플릭스와 요리 예능을 하기로 한 후 넷플릭스 크리에이티브 팀 유기환 디렉터(이사)가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우리가 백종원을 선택한 게 아니라, 백종원이 넷플릭스를 등에 업은 우리를 선택했고, 그래서 '흑백요리사'가 탄생할 수 있었다. '흑백'이라는 아이디어도 사실 백종원의 '백'에서부터 출발했다. 백 대표 뿐만이 아니다. 과거 백 대표와 함께 한

조물주인 드라마 감독과 달리 예능 PD는 관찰자이자 광대 '척' 아닌 '진' 찾는 시청자들 진짜 위해 두부 1800도 썬다



안혜리 논설위원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심사를 맡았던 최현석 셰프를 심사위원이 아닌 도전자로 내세울 수 있었던 것도 넷플릭스 이름이 컸다.

대중은 넷플릭스의 영향력을 막연히 자본력으로 생각한다. PPL을 허용하지 않는 시스템인 데다 '솔로지옥'이나 '피지컬100' 등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의 스케일이 기존 국내 예능 수준을 훌쩍 뛰어넘다 보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넷플릭스가 막대한 제작비를 주기 때문에 큰 스케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구현하는 만큼의 제작비를 준다. 자본력을 무시할 순 없지만, 그걸 넘어서는 글로벌 1위 플랫폼이라는 브랜드의 힘이 퀄리티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제작비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여기엔 함정도 있다. 돈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당연한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제작비 많다고 꼭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 '흑백요리사' 관련 인터뷰를 할 때 얼마나 큰 세트에 얼마나 대단한 첨단 장비와 얼마나 많은 카메라를 동원했느냐는 등 돈 자랑은 하고 싶지 않았다. 시즌 1의 성공을 발판삼아 '흑백요리사' 시즌 2에선 스케일을 더 키우는 게 아니라 장르 카메라 대수는 줄이고, 인력이나 장소도 더 효율적으로 쓸 방법을 찾아 보려 한다.

제작비 인플레이션 제작 편수가 폭 떨어지던 건 드라마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예능 판 역시 누군가 제작비를 무한정 늘리면 결국 제로섬 치킨게임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가뜰이나 TV는 울드쳐져서 신규 예능이 줄어드는 마당에 OTT마저 제작비 이슈로 새로운 시도가 점점 없어지면 안 되지 않나.

단풍인 줄 알았다. 울긋불긋한 산을 보며 '벌써 단풍이 들었네?'라는 짧은 의문을 가졌을 뿐 그게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라고 짐작을 못 했다.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위에서부터 말라 내려오는데, 그러면 잎이 불그스름하게 바뀌면서 단풍처럼 보인다. 특히 솔잎이 우산을 접은 것처럼 아래쪽으로 처지는 것도 또 다른 증상이다.

이런 소나무 재선충이 경남 밀양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22년 37만8079그루가 재선충으로 죽었다. 그러나 2023년에는 106만5067그루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도 현재까지 89만9000여 그루가 고사했다. 지역별로 보

면 경북, 경남, 울산, 대구, 경기, 제주, 전남 등 145개의 시·군·구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했다.

재선충은 소나무에 기생하는 선충(1mm 내외 크기)의 일종이다. 나무 조직 내 수분·양분 이동 통로를 막아 소나무를 말려서 죽인다. 하지만 맨눈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작아 스스로 나무를 옮겨 다니지 못해 솔수염하늘소 등 '매개충' 몸에 침투해 다른 나무로 옮겨 다닌다. 특히 재선충의 번식력은 놀랍다. 암수 한쌍이 20일 후 20만 마리까지 번식해서다. 현재는 백신도 없어 걸리면 죽을 확률이 100%여서 '소나무 불치병' 등으로도 불린다.

이렇게 해마다 재선충이 창궐하는

소나무 무덤



경남 밀양시 상남면 한 야산에 있는 '소나무 무덤'. 위생욱 기자

이유에 대해 산림청은 기후변화를 꼽았다. 지구온난화로 소나무 생육 여건이 악화되고 봄철 고온 현상 등으로 매개충의 조기 우화(번데기가 날게 있는

성충으로 변화)와 활동 기간 확대로 재선충병 발생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여기서 예산 부족 등으로 기존 재선충 감염목을 다 제거하지 못한 것도 또 다른 원인이다.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면 벌목해 다른 곳에서 파쇄한다. 그렇지 않은 곳은 전기톱으로 병에 걸린 소나무를 1m 크기로 자르고 쌓아 여기에 약을 뿌리고 대형 비닐(가로 1m, 세로 1.2m, 높이 0.7m)로 밀봉하는 '훈증방식'으로 처리한다. 그런데 이때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만 벌목하는 것이 아니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이 발생하면 함께 있던 닭과 돼지를 무더기로 살처분 하는 것과 비슷

하게 재선충이 발병한 소나무 인근 소나무 등도 '감염 우려목'으로 분류해 함께 처리한다. 훈증방식으로 처리한 대형 비닐이 구제역 살처분 장면과 겹쳐져 '소나무 무덤'처럼 보인 이었다.

살처분 장면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살아 있는 생명이 땅에 혹은 저장조에 무더기로 매장되는 장면이 얼마나 끔찍한지 안다. 산에서 들리는 '왕'하는 전기톱 소리가 자꾸 살처분 때 동물들이 내는 비명과 겹쳐졌다. 더는 이런 방식으로 재선충에 대응해서는 안 된다. 해마다 피해가 극심한 특별방제지역은 수종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산림청의 입장은 그래서 반갑다.

위생욱 부산총국장

맛있는 음식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음식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 빌딩 3층

시 설

토 달고 물 타는 사과로는 민심 수습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의 7일 회견을 앞둔 국민의 심정은 기대 반 우려 반일 것이다. 대통령실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니 일단 주목은 하지만, 과거에 윤 대통령의 회견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2대 총선 직전에 있었던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올해 4월 1일)다. 당시 여당은 의료대란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윤 대통령이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유연하게 조정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윤 대통령은 “2000명은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증원을 결정했다”고 못 박았다. 의료계를 향해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이긴 했으나, 회견을 지켜본 대다수 국민은 대통령이 조금도 양보할 뜻이 없다는 인상을 받았다. 최근 발간된 국민의힘 총선백서는 “담화 직후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절망이 팽배했고 민심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면서 그 어떤 선거운동도 백약이 무효라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기술했다.

취임 2주년 회견(올해 5월 9일)은 채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조금도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아 야당의 강한 반발을 샀다. 8월 29일 국정브리핑 때도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히 가동된다”며 자화자찬에 치중했을 뿐 반성과 성찰은 거의 없었다. 당시 ‘김 여사 특검 조사’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저도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 조사한 일이 있다”며 감싸기로 일관했다.

7일 회견도 이런 식이라면 정권의 위기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윤 대통령은 회견 때 참모들이 사전에 준비한 ‘국정 성과’ 소개 같은 건 전부 빼버리고 작금의 정국 혼란을 야기한 ‘명태군 사태’와 자기 성찰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게 좋겠다. 명태군씨와 김 여사 문제에 관한 한 윤 대통령은 무조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꾸 토를 달거나 물을 타려 하면 오히려 역풍만 맞을 뿐이다. 명사 사건의 진상도 숨김없이 공개하고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과 대통령실의 ‘여사 라인’ 정리도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

나아가 내각의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 기조 전환도 시급한 과제다. 또 회견에 앞서 윤 대통령이 용산 밖의 민심을 청취하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 늘 ‘별문제 없다’는 보고만 올리는 참모들보다 시중의 생생한 쓴소리가 대통령에게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엔 진정 국민에게 매를 맞겠다는 각오로 회견에 임해야 한다.

대통령, 번번이 자화자찬 회견으로 역풍 맞아 이번엔 국민에게 매 맞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탄핵 대신 개헌? 민주당의 뻔한 속

고정애의 시사각각
時 視 各 角



“정치적 언어는 거짓말이 진실하게 들리고 (...) 소망이 확고한 사실처럼 보이게 만들도록 고안되었다”고 한 이는 1946년의 조지 오웰이다. 3년 후 작품(『1984』)에 그 예를 담아냈다. 우리에게 ‘빅 브라더’가 알려졌지만 사교의 영역을 좁힌 ‘신어(Newspeak)’, “고문자이자 보호자이며 심문자이자 친구”가 가능토록 한 ‘이중사고(doublethink)’ 등이 있다. 그가 만들진 않았으나 그의 영향이 뚜렷한 단어도 있다. 바로 ‘더블스피크(doublespeak)’다. 의미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하거나 위장·왜곡하고 뒤집는 언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접근법을 보며 더블스피크를 떠올렸다. 탄핵이란 단어만 털어낼 뿐 그들의 언행은 뚜렷이 탄핵으로 향한다. “정치적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m당 20~30명꼴로 몰려 규탄했다고 주장한다(2일 ‘30만 명’ 집회 주장).

최근의 ‘임기단축 개헌’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혹은 2년 단축하는 내용의 부칙을 담은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퇴진을 앞당길 수 있으면서도 탄핵보다 실현 가능성이 큰 카드”라고 주장한다. 국회 가결 요건(제3분 2)은 동일인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탄핵과 달리 국민의 판단(국민투표)을 요한다는 게 명분이려면 명분이다. 속내론 현재에서 기각할 수 있으니 대신 ‘헌법 개정’ 방식으로라도 대통령을 하차시키고 싶다는 더블스피크다. 그네들이 혐오해 온 권위주의 통치자들이 개헌을 무기로 삼던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실현 가능하냐면 그렇지도 않다. 다들 개헌하자고 말하지만 방향에 대한 공감대는 적다. 이런 가운데 거대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대통령 중임제로 바뀐다? 더군다나 누가 등장할지 뻔한데? 8년 통치? 국민의힘 의원 일부라도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하길 기대하는 게 더 빠를 것이다. 위헌 문제도 있다. 헌법 제128조 2항에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는 효력이 없다’고 돼 있다.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조항이니 괜찮다는 건 자의적 해석이다.

진정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어서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는데 국회가 제 때 개정하지 않아 효력을 잃은 지 오래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잘 만들어도 개헌투표를 하지 못한다”고 한 게 2018년이다.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정할 순 있겠으나 그런 국민투표법이 국민투표법으로 여겨지겠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거대 야당 일방 의결→대통령 거부권→재의결 부결’의 무한루프에 빠진다.

노회한 거대 야당 전략가들이 이를 모른 채 개헌 드라이브를 건다고 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을 언제든지 끌어내릴 수 있

거야 ‘임기단축 개헌’ 드라이브 개헌 동원한 정쟁... 실현성 낮아 헌안보관으로 대안 될 수 있겠나

다는 다양한 신호가 필요했을 것이다. 왜 그런지 짐작할 것이다.

윤 대통령 부부가 지지자마저 부끄럽게 하는 건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의 거대 야당이 대안이라는 다른 문제다. 이 대표가 최근 국정원이 북한군 포로 심문조를 파견하겠다고 하자 “고문기술 전수라도 하겠다는 거냐”라고 했는데, 그 국정원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 직속이었던 걸 아는지 모르겠다. 그때도 고문했다고 보나. 북한군 전력 참관단을 두곤 “파병 동의를 받는 게 상식”이라고 했는데, 전례를 보면 상식을 보완해야 할 건 이 대표로 드러났다. 북한의 풍선이 대통령실에도 떨어지는 현실에도 우리 정부를 “전쟁 획책한다”고 했는데, 북한을 향해야 할 비난 아닌가. 대통령의 제1책무는 국가의 생존이고 그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거대 야당과 이 대표가 엄중한 책무를 정쟁 소재로만 쓰는 걸 보고 경악한다.

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고 믿지만 설령 털 달라지더라도 지금의 이 대표와 민주당이 대안일까. 진퇴부르다.

중앙SUNDAY 편집국장대리

서울 그린벨트 해제... 실질적인 주택 공급으로 이어져야

국토교통부가 어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689만㎡를 해제해 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서초 서리풀 지구, 고양 대곡, 의왕 왕곡, 의정부 용현 지구다.

특히 서초구 원지·우면동 서리풀 지구엔 총 2만 가구 중 절반 이상인 1만1000가구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로 짓는다고 한다. 아이를 낳으면 20년간 거주할 수 있고, 2자녀 이상 낳으면 20년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 저출산 원인 중 하나가 높은 집값이다.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확충하는 것은 저출산 대응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문제는 정부 발표대로 2029년 분양해 2031년부터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느냐다. 상승 폭이 다소 둔화하긴 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아파트값 오름세는 지속하고 있다. 과열을 막기 위해 금융 당국이 주택 대출을 조였지만 장기적으로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 주택 공급은 대책을 내도 실제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부터 확실히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게 가장 먼저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4 대책을 통해 군 소유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실현하지 못했다. 어정쩡한 입장인 국방부는 정권이 바뀌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계 부처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한 모면하기식 대책 발표는 시장의 불신만 초래한다. 이런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8·8 대책으로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야당에 주택 공급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거대 야당 역시 민생 안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집권을 노린다면 지금부터 공급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무분별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후일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기후변화에 그린벨트의 중요성도 커진다. 공급이 문제가 되는 곳은 서울과 수도권이다. 도심 재건축·재개발도 활성화해 신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투기 방지 대책은 필수다. 2021년 3월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이 좋은 예다. 신도시 정보를 알아 미리 땅을 사고, 비싼 나무를 심어 더 많은 보상을 받아내기도 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뿐 아니라 사업 시행 과정의 불법행위도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

구독신청: 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fe.joongang.co.kr 광고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물품: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 경제저널이데아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마이니치 日本經濟新聞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5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하게!



정성웅 보험을 선택하는 이유

자동차 보험료 할인!!



갑자기 확 오른 자동차 보험료 때문에 걱정이시죠?
 그런데도 다른 보험을 알아 보시기를 주저하고 계신가요?
 보험료를 절감하시려면, 한 해마다 꼭 “비교” 해 보시고
 보험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정성웅 보험

{ 나에게 꼭 맞는 알뜰한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 확인하세요~! }



정성웅 보험 | T. 703.825.2945 Fax. 703.532.4750
 14641 Lee Hwy., Unit 108, Centreville, VA 20121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문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LA 광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건강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Wednesday, November 6,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된 정당한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용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출처: GettyImagesBank

틀니 전용 세정제로 닦고, 지팡이는 장소별 길이 조정해 사용

노년기 건강 아이템 사용법 나이가 들면 신체 곳곳에서 변화가 찾아온다. 청력이 저하되고 저작력이 약해지는가 하면 균형 감각도 둔해진다. 보청기·보행기·지팡이·틀니는 이러한 변화를 극복하게 돕는 지원군이다. 하지만 아무리 유용한 제품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큰돈 주고 마련한 제품의 수명을 단축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자.

틀니
일반 치약 쓰면 세균 번식
임플란트가 대중화됐지만, 여전히 틀니를 쓰는 사람이 많다. 그만큼 잘못 알려진 사실도 적지 않다. 그중 하나가 틀니 세척 횟수다. 흔히 틀니는 자기 전 한 번만 닦으면 된다고 생각하나 자연치아처럼 식사가 끝나고 매번, 하루 3~4회는 닦아야 한다.

이때 일반 치약으로 세척하는 일은 피한다. 강동경희대병원 치과보철과 안수진 교수는 “일반 치약은 오히려 틀니를 세균의 온상으로 만드는 주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틀니는 치아보다 약한 플라스틱 재질이라 치약으로 닦으면 표면에 상처가 나고 그 틈새로 구내염

등을 유발하는 세균이 번식될 수 있어 반드시 전용 세제로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혹 틀니를 소독하기 위해 끓는 물에 삶는 이들도 있다. 이 경우 의치의 변색·변형이 일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소금물 사용도 마찬가지다. 만약 의출 중이라 제대로 된 세척이 어렵다면 물로라도 입속과 틀니를 헹구 주도록 한다.

사용자들이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은 착용 시간이다. 틀니 사용자의 약35%는 틀니를 끼고 자는 것으로 보고된다. 잘 때는 침 분비 감소로 구강 내 세균이 증가해 혀나 틀니에 더 많은 플라크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구취가 유발되고 잇몸 조

직에 손상이 가해질 수 있다. 안 교수는 “틀니를 끼고 있는 시간만큼 잇몸도 놀리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위해서라도 틀니를 빼고 자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청기
습도 관리 잘해야 오래 사용
나이가 들어 시력이 떨어지면 주저 없이 안경을 쓰지만, 보청기는 다르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도 착용을 꺼리는 노년층이 많다. 하지만 난청 증상이 악화하면 치매와 우울증 위험까지 커져 빠른 대처가 요구된다.

보통 청력 손실 정도가 35dB(데시벨) 이상이면 보청기 착용을 고려한다. 제품을 살 때는 청력 검사 결과와 제품 가격, 무상 수리 보증기간, 구매 전 시험 착용 기간 제공 여부 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특히 보청기는 온라인에서 손쉽게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소리 증폭기와는 구분해 쓸 필요가 있다. 한국보건 의료 연구원에 따르면 소리 증폭기는 난청이 아닌 일반인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록 도움을 주는 전자제품이다. 난청으로 진단받은 환자라면 소리 증폭기를 쓰기 전 이비인후과 전문의와의 상담이 권장된다.

보청기 구입 후 수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인은 습도 관리다.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화장실처럼 습도가 높은 곳보다는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또 물에 들어갈 때와 씻을 때는 빼는 게 좋다. 간혹 보안검색대를 지날 때 보청기를 빼야 할지 헷갈리는 이들이 있다. 공항 보안검색대는 방사선이 약해 보청기를 손상하지 않으니 그대로 간 채 지나가도 무방하다. 반면에 강한 자기장은 보청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때는 뺀다.

지팡이
계단에선 짚는 순서 지켜야
지팡이는 주로 한쪽 다리의 불안정한 보행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하지수기자

▶ 4면 '노년기'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약력
- 대한민국 한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 치매
- ◆ 뇌졸중(중풍)
- ◆ 파킨슨병
- ◆ 두통
- ◆ 어지럼증
- ◆ 이명
- ◆ 불면증
- ◆ 수면질환
- ◆ 손발 저림
- ◆ 감각이상
- ◆ 보톡스
-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7700 건물 6층**

추위질수록 심해지는 건선 피부병 ... 악수·포옹으로는 전염 안 돼요

건선 바로 알기 건선은 고혈압·당뇨병처럼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다. 팔꿈치나 두피, 무릎, 엉덩이 등 외부 마찰이 잦고 자극이 많은 부위에 주로 발생하지만 전신 피부 어디에나 나타날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 피부과 이주홍 교수는 “목초액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민간요법에 의존하다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선은 면역 시스템 불균형으로 염증이 지속해서 생긴다. 아주대병원 피부과 박영준 교수는 “일조량이 줄어들고 추위로 두꺼운 옷을 입으면 햇빛 자외선으로 인한 치료 효과가 줄고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피부 장벽이 망가져 피부 발진, 가려움증 같은 건선 증상이 심해진다”고 말했다. 피부 염증으로 좁쌀 같은 발진이 붉게 돌고, 각질이 겹겹이 쌓여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고, 극심한 가려움증에 피가 날 때까지 긁는다. 더 진행하면 피부가 두꺼워지고 병변이 넓어진다.

건선 염증으로 심혈관 질환, 관절 변형도 건선으로 인한 피부 병변의 양상은 다양하다. 가장 흔한 판상 건선은 은백색 비늘을 덮은 붉은 판 모양의 발진이 생긴다. 이외에도 편도선염·인후염 등 상기도 감염을 앓은 후 온몸에 물방울 모양의 작은 발진이 돋아나는 물방울 건선, 오향·고열 등 증상과 함께 누런 고름 물질(농포)이 잡히는 농포성 건선, 온몸에 붉은 발진이 과도하게 생기는 홍피성 건선 등이 있다. 무릎·팔꿈치 등 부위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각질이 눈에 띄게 늘거나, 손톱 끝이 하얗게

부서지고 손발톱이 벌어지면 건선을 의심해야 한다.

건선의 염증은 피부 증상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유발한다. 의정부를 지대병원 피부과 한별 교수는 “여러 연구를 통해 건선이 전신성 염증 질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건선은 눈에 보이는 피부 병변이 작더라도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한 배경이다. 건선을 오래 앓으면 전신 염증 반응으로 비만·고혈압·당뇨병 등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진다. 또 염증이 관절까지 침범하는 건선성 관절염으로 손가락·발가락 같은 작은 관절이 붓고 뻣뻣해지다 관절이 틀어지면서 변형될 수 있다. 한림대성심병원 피부과 박은주(대한건선학회 홍보이사) 교수는 “건선은 동반 질환이 위험이 높은 전신 염증성 질환인 만큼 적극적 치료로 건선의 염증 반응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피부 스트레스로 심리 상태도 불안정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이나 팔다리 피부가 매끈하지 않아 자신감을 잃고, 수영장·도서관 등 공공장소를 가는 것을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 악수·포옹 같은 신체 접촉 등으로는 건선이

전염되지 않는데도 건선으로 인한 차별적 시선을 감내해야 한다.

피부 증상 나아져도 치료 지속해야 전신으로 퍼진 중증 건선은 면역 체계에 작용하는 다양한 생물학적 제제로 치료한다. 박영준 교수는 “중증 건선 치료에 여러 생물학적 제제가 보편적으로 쓰이면서 피부가 완전히 깨끗하고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인 PASI100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건선은 피부 증상이 악화·호전을 반복하는 만성적 경과를 보인다. 이주홍 교수는 “혈압·혈당이 조절돼도 치료를 중단하지 않는 것처럼 건선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ASI100을 달성해도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하는 경우가 흔하다. 만성 염증성 질환인 만큼 주기적으로 진찰 받아야 한다.

일상에서 건선 증상을 완화하려면 기억해야 할 수칙은 네 가지다. 첫째로 피부 자극을 최소화해야 한다. 건선 발병 후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그 자리에 건선이 발생할 수 있다. 한별 교수는 “각질을 떼어내거나 때를 밀거나 긁는 등 피부에 상처를 주는 행위는 건선이



출처: GettyImagesBank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종 수술이나 침·뜸 등 피부에 자극을 가하는 치료 행위도 가급적 삼가야 한다. 둘째로는 피부 보습이다. 피부가 건조하면 건선 증상이 더 심해진다. 건선 환자는 계절 변화에 따른 피부의 기능 조절 능력이 떨어져 피부가 쉽게 건조해진다. 박은주 교수는 “보습제를 꾸준히 바르는 것만으로도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피부 장벽이 회복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셋째로는 금연·금주 실천이다. 흡연은 특히 손·발바닥

농포성 건선과 관련이 매우 높다. 하루 한 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선 악화 위험이 2배 이상인 것으로 보고됐다. 알코올도 체내 수분을 배출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면서 건선이 심해진다. 마지막은 스트레스 관리다. 스트레스는 중추 신경계를 자극해 건선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적절한 휴식과 충분한 수면을 가지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선미 기자

중증 심뇌혈관 질환, 적극적 LDL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

심근경색·뇌졸중 등 중증 심뇌혈관 질환은 한국인 사망 원인 2위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정 특례 기한 확대 필요성, 복약 순응도 증진 등을 지적하면 심뇌혈관 질환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 치료 중요성이 강조됐다. 심뇌혈관 질환은 원천적인 치료를 지속하지 않으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급성기 증상이 사라져도 다시 재발할 수 있다.

심뇌혈관 질환 재발을 막는 핵심 요소는 혈관 염증을 유발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콜레스테롤 관리다. LDL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상태로 지내면 중증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커진다. 특히 LDL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이상지질혈증은 고혈압·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동반하기 쉽다. 고혈압으로 혈관 손상이 생기고 당뇨병으로 염증 반응이 촉발되면 그 부위에 콜레스

수치 높아지면 혈관 염증 유발 복약 순응도 높인 약, 급여 시급

테롤이 더 쉽게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죽상동맥경화증에 가속도가 붙는다. 그만큼 더 빨리 혈관이 손상되면서 심뇌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커진다는 의미다.

이런 이유로 임상 현장에서 LDL콜레스테롤을 더 철저히 조절하는 방향으로 치료 목표가 엄격해졌다.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ASCVD) 등 초고위험군은 LDL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을수록 심뇌혈관 질환 재발 위험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LDL콜레스테롤을 치료 목표 수준만큼 끌어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ASCVD 등으로 초고위험군인데도 LDL콜레스

테롤의 치료 목표 달성률은 24.4%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LDL콜레스테롤은 안정적으로 조절되지 않으면 중증 심뇌혈관 질환이 재발할 위험이 2배가량 높아진다. 국내 급성 심근경색을 경험한 환자의 78%는 심근경색 이후 1년 내 LDL콜레스테롤을 치료 목표 수치만큼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LDL콜레스테롤 관리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얼마나 꾸준히 약을 잘 먹는지를 평가하는 복약 순응도다. 복약 순응도가 높은 ASCVD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심혈관 사건 발생이 27% 낮게 나타난다. 하지만 국내 ASCVD 환자의 복약 순응도는 66.4%로 낮은 편이다. 이마저도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약 순응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투약 횟수를 연 2회로 줄면서 복약 순

응도를 높인 PCSK9 억제 기전의 신약인 레비오가 등장하면서 LDL콜레스테롤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이찬주 교수는 “높은 복약 순응도는 ASCVD 환자 등 초고위험군의 심뇌혈관 사건 재발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을 낮춰 전체 보건 의료 시스템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레비오는 2주마다 자가 주사하던 기존 PCSK9 억제제와 비교해 투약 순응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다만 아직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적으로 적용돼 실질적인 환자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다. 레비오는 미국·영국·독일·스페인·그리스·일본 등 전 세계 39개국에서 급여로 쓰이고 있다.

이상지질혈증으로 인한 중증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낮추려면 LDL콜레스테롤 관리는 필수다. LDL콜레스테롤은 혈관 내벽에 쌓여도 심뇌혈관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이상 증상이 없다.

권선미 기자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혜민한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0%	0.0%	53.9%	42.9%	2.3%	0.0%
매우 좋음	양호	노화 시작	주의	나쁨	매우 나쁨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가역성,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복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팔목
힘없다
찌릿찌릿
바닥 못누움

엉치
포리백
좌골신경통

sciatica

엎드리면 통증
허리
누우면 통증

오래 앉아있지 못함

구부리기 힘들다

75°
30°

뒤로 피기 힘들다

손가락
Spasm of finger

toes cramps
발가락
toes

발목
오래된 것
쉽게 해결 됨

plantar aches
발바닥 통증
뒤꿈치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Nerve Control
SNC
Scientific Nerve Control
뇌신경조절의학

혜민한의원
뇌신경 조절
한 의사 권진열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NerveControlSNC.com

일수금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토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소변 색 짙어지면 간·신장 이상, 소화불량은 췌장 기능 의심

‘침묵의 장기’가 보내는 신호 간·신장·췌장은 소리 없이 병드는 ‘침묵의 장기’다. 증세가 심해지기 전까지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상이 생겨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어렵다. 그만큼 치료가 까다롭고 예후가 나쁠 수밖에 없다. 증상을 자각했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원인 질환은 다르지만 증상은 유사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평소 몸 상태를 유심히 관찰해 신체에 생긴 미세한 변화라도 주의 깊게 알아채는 것이 중요하다. 침묵의 장기가 병들어갈 때 나타나는 신호와 특징을 알아본다.



간 황달·손바닥 홍반·입 냄새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다. 탄수화물과 지방, 호르몬, 비타민, 무기질 대사에 관여하고 소화 작용을 돕는 쓸개즙을 생산한다. 신체 내에서 합성되거나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독소를 해독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그런데 간 기능이 저하되면 다양한 신체적 문제가 발생한다. 황달이 대표적이다. 간이 점점 손상되면 피부와 눈의 흰자가 누렇게 변하는 황달 징후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담즙의 구성 성분인 빌리루빈이 과도하게 쌓인 결과다. 보통 간이 빌리루빈을 제거하지만, 손상된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빌리루빈의 혈중 수치가 높아져 황달을 유발한다.

간 기능 이상으로 황달이 심해지면 대변과 소변도 색이 짙어진다. 정상적인 대변은 황갈색, 소변은 맑은 노란빛을 띤다. 하지만 간에서 나오는 담즙의 흐름이 막히면 대변은 짙은 갈색으로, 소변은 더 누렇게 변한다. 빌리루빈이 담즙을 통해 대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혈액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이런 신체 곳곳에 극심한 가려움증과 붉은 반점, 손바닥 홍반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증상은 지방간에서 간경화로 이행되는 시기에 주로 발견된다. 또한 간에서 해독되지 못한 노폐물은 심한 입냄새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때 나는 입냄새는 달걀 썩는 구린내와 시큼한 냄새를 풍기는 게 특징이다. 치아에 문제가 없는데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입냄새가 계속된다면 간이 보내는 적신호임을 알아채고 건강 상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신장 짙은 색 소변·가려움 증·부종

신장(콩팥)은 우리 몸에

서 필터 역할을 담당한다. 노폐물을 여과하고 소변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혈액 속에 녹아 있는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면서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는 식이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 노폐물이 쌓이면서 단백질이 소변과 함께 빠져나온다. 이땀 소변에 비누를 풀어놓은 듯 거품이 많이 생긴다. 신장 문제를 알리는 대표적인 신호인 단백뇨다. 소량의 단백뇨라도 방치하면 신장 기능이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 만약 급성 신장염이라면 콜라 색의 짙은 소변을 보기도 한다. 적혈구가 과도하게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소변 색이 짙어지는 경우다.

가려움증과 부종도 눈여겨보아야 할 증상이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피부가 쉽게 자극받아 가려움증을 느끼게 된다. 신장이 거르지 못해 몸속에 요독(尿毒)이 쌓여 나타나는 결과다. 만성 신부전증으로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의 절반가량은 요독성 가려움증을 호소할 정도다. 또한 눈꺼풀 주변과 손발이 부으면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 부종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 압력 자국이 깊고 오래 남는다. 오목(함양) 부종에 해당하는 경우다. 부기는 안면부부터 시작해 심하면 전신에서 나타날 수 있다. 신장 기능이 망가져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수분과 염분 조절 능력이 급감해 부종은 물론 호흡곤란까지 동반할 수 있다.



췌장 소화불량·체중 감소·당뇨

췌장은 침묵의 장기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이다. 몸속 깊은 곳에 있어 이상 증세를 발견하기 어렵고, 혈관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 수술하기도 힘들다. 췌장은 복강 내 장기 중 가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다. 각종 소화

기관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 소화액에 관여하는 췌장액과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한다. 췌장은 80%가 망가지기 전까지 별다른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보통 소화가 안 되거나 명치 끝 쪽이 아파서 대증적인 치료를 받다가 병을 발견한다. 소화불량은 췌장 문제를 알아챌 수 있는 미세한 단서다.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효소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소화와 영양소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한 달 이상 소화불량 증상이 지속한다면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복통도 그냥 지나쳐선 안 된다. 췌장에 급성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명치나 왼쪽 상복부에 지속해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난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등 쪽으로 뻗어 나간다. 사실 복통이 뚜렷하게 나타날 땐 이미 췌장암이 크게 악화했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다. 체중 감소와 복통이 나타나기 전에 정기적으로 초음파와 복부 CT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황달도 췌장암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이다. 종양 때문에 총담관이 막혀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제대로 흐르지 못해 발생한다. 황달이 생겼을 때 발견된 췌장암은 수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사소한 변화라도 평소 몸의 이상 증상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이롭다. 또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 내 포도당이 넘쳐 혈당 조절이 어려워진다.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이다. 전에 없던 당뇨병이 나타나거나 기존의 당뇨병이 악화하기도 하고 췌장염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신영경 기자

도움말=남순우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손효문 인천힘찬종합병원 소화기내과 부원장, 이수아 대전을지대병원 신장내과 교수

침묵의 장기 지키는 검진 항목

간 기능 검사

간 상태를 확인하는 주요 지표는 AST·ALT, 감마GTP, 빌리루빈이다.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땐 이들 수치가 상승한다. 검진 결과 간세포

안에 들어 있는 효소인 AST·ALT가 정상 수치(0~32U/L)보다 높게 나오면 간세포가 손상됐다는 신호다. 감마GTP는 간·담관의 상피세포에서 유래하는 효소로,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수치가 높아진다. 빌리루빈 수치가 기준보다 높게 나타나면 간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신장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는 신장의 여과 기능을 확인해

이상 여부를 관찰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혈액검사를 통해 얻는 크레아티닌(Cr)과 추정 사구체 여과율(eGFR)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기준 이상으로 많다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신호다. 추정 사구체 여과율은 결과값이 떨어질수록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것을 의미한다.

췌장 검사

췌장을 살펴보기 유용한 검사는 복부 CT와 췌장 MRI다. CT만으로 진단이 어렵거나 조영제 부작용 등으로 CT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MRI, 초음파와 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를 고려한다.

건강검진에서 흔히 이뤄지는 복부 초음파는 췌장 검사에 적합하지 않다. 췌장이 복부 뒤쪽 깊은 곳에 있어 검사의 민감도가 떨어진다.

The Centers
for Advanced Orthopaedics
The Orthopaedic Foot & Ankle Center

김창용 발 전문병원

발이 아프시면, 이제 김창용 발 & 발목 전문의에게 맡겨 주십시오!

우리 신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 이 발이 불편한 것을 그냥 참거나 넘기지 마세요. 발이 불편하시면 일단 거동이 어렵게 되고, 생활이 불편해져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발이 아프거나 불편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과 증상이 있습니다. 환자 개인에게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족부의학 전문의
Dr. Chang Yong Kim D.P.M.

Dr. 김창용 원장
- Kent State University, College of Podiatric Medicine
- Podiatric Surgery Residency at St. John's Episcopal Hospital
- Wound Care Fellowship at St. John's Episcopal Hospital
- The American Board of Podiatric Medicine Certified
- Hyperbaric Medicine Team Training Course Certification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Podiatric Medicine

진료 과목	• 당뇨병 발 관리	• 당뇨 신발	• 기능성 발 보조기
	• 발 및 발목 골절	• 상처 치료	• 족저근막염
	• 망치 발가락	• 건막류	• 사마귀 및 궤양
			• 관절염

예약 문의 **703.394.4818** 통역 서비스 제공 www.footankledc.com

2922 Telestar Court, Falls Church, VA 22042 / 1550 Wilson Blvd, Suite 105, Arlington, VA 22209

남성 암 3위 '전립샘암', 아버지·형제 가족력 있다면 35세부터 검사를

전립샘암 바로 알기

얼마 전까진 '서양암'으로 불렸다. 미국·유럽에서나 발병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인종적으로도 발병률이 흑인, 백인, 황인 순으로 높다. 이들 지역에선 늘 남성 암 발생률 1위인 암이다. 그런데 이제는 남 애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전립샘암 발병률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오랫동안 남성 암 발생률 5~6위 정도에 그쳤던 전립샘암이 2020년엔 3위까지 올라섰다. 2021년에 4위(발생률 73.1)로 내려갔지만 3위인 대장암(74.8)과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남성 암 발생률 수치가 1990년대 말부터 꺾임 없이 증가하는 유일한 암이라는 점이다. 위암·폐암·간암 발생률이 완만하게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립샘암은 이제 드문 암이 결코 아니다.

전문가들은 전립샘암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서구화된 식습관과 인구 고령화를 꼽는다.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이 높을수록 발병하기 쉬운 암인 만큼 식습관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 암 특성상 나이 들수록 발병률은 증가하기 마련이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은 20여 년 전부터 남성 암 2위였다.

부계보다 형제 가족력이 더 강해

하지만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유전이다. 다른 암도 그렇지만 전립샘암 역시 가족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아버지가 전립샘암을 겪은 경험이 있으면 아들의 경우 일반인보다 전립샘암에 걸릴 위험이 2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형제 가족력이 더 강하다. 전립샘암에 걸린 형 혹은 남동생이 있는



출처: GettyImagesBank

90년대 말부터 유일하게 계속 증가 서구화된 식습관·인구 고령화 원인 수술이 최우선 치료, 부작용은 속설

경우 자신의 전립샘암 발병 위험은 3배까지 높아진다. 게다가 일관성 쌍둥이일 경우 이 위험도는 4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다. 가천대 길병원 비뇨의학과 오진규 교수는 "전립샘암 위

험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뭐니뭐니 해도 유전적 요인"이라며 "우선 부계 유전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전립샘암이 있었다면 아들의 전립샘암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데 이보다 강력한 것이 형제 관계"라며 "형 혹은 동생에게 전립샘암 경험 있다면 전립샘암에 걸릴 확률이 확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도 앞당겨진다. 전립샘암은 주로 60대 이상에서 많이 발병한다. 환자의 70.8%가 60~70대, 40대는 0.5%, 50대는 5.1%에 그친다. 그래서 전립샘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사는 보통 40대 남성부터 권장된다. 선별검사로 전립샘특이항원(PSA) 검사가 사용되는데, 혈액 검사로 PSA 수치를 알아볼 수 있다.

수치가 3ng/mL 이상일 경우 전립샘암 존재 가능성을 40% 정도로 본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35세부터는 PSA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권장된다.

수술해도 성관계·자녀계획 문제 없어

치료는 수술이 우선적인 치료법이다. 뼈 전이 등으로 항암 약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술을 적용한다. 복강경 수술뿐 아니라 로봇수술까지 적용되면서 정밀한 수술이 가능해졌다. "수술하면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린다"는 말이 있지만 속설에 불과하다. 오 교수는 "옛날 한때 수술보다 방사선 치료가 부작용이 작다는 연구가 있었지만 막상 임상에선 방사선 치료가 발기부전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제는 복강경과 로봇으로 정교하게 신경을 살릴 수 있게 돼 요실금이나

발기부전 같은 부작용이 현저히 줄었다"고 강조했다.

갑상샘암처럼 치료하지 않고 지켜봐도 괜찮다는 말도 오해 중 하나다. 전립샘암의 분화도(침윤 정도)를 평가하는 글리슨 점수 합산이 6점까지는 예후가 좋지만, 7점 이상부터는 예후가 안 좋아지고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치료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수술은 성생활이나 자녀계획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 교수는 "실제로 수술받은 분들은 '생활에 큰 불편감이 없을 정도로 결과가 좋다'고 말한다"며 "여러 오해 때문에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분들이 종종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발병하는 연령대를 고려하면 자녀계획이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아이를 갖는 것도 가능하다. 오 교수는 "수술 시 전립샘을 들어내면서 정관을 절제하기 때문에 정관이 막히지만, 아이를 갖고자 한다면 정자를 냉동 보관하지 않은 경우라도 고환에서 정자를 채취해 체외 수정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립샘암도 암인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 콩이나 토마토 등 리코펜인 성분이 함유된 음식, 강화 등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된다. 또한 스트레스는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면서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은 절제하는 게 좋다. 특히 호르몬 보충요법은 주의해야 한다. 남성호르몬이 부족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 치료가 정상적인 사람에게 혹은 근육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면 전립샘암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당장은 근육량 증가에 기분 좋을 수 있지만 전립샘암에 가까워지는 길이다. **류정훈 기자**

1면 '노년기'에서 이어집니다

종류는 외발, 3~4개 발이 달린 다족 지팡이로 나뉘며 불안정한 정도가 심하면 다족 지팡이를 쓰는 게 좋다.

지팡이를 이용할 때는 높이부터 제대로 맞추는 게 먼저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높이는 대퇴골의 대전자 부위까지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재활의학과 안재기 교수는 "보통 두 팔을 몸에 붙이고 차렷 자세로 섰을 때 손목 바깥쪽 뼈의 튀어나온 부분까지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높이에서 지팡이를 잡으면 팔꿈치가 20~30도가량 구부러지고 어깨나 허리 등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또 평지가 아닌 오르막길에서는 길이를 줄이고 내리막에서는 길이를 늘여 사용하도록 한다. 등산스틱 쓰는 방법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지팡이를 어느 손에 잡는지도 중요하다. 지팡이는 아픈 다리의 반대편 손으로 잡는다. 예컨대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면 왼손으로 지팡이를 짚는다. 그 래야 몸이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감 있게 걸을 수 있다.

지팡이 사용자가 흔히 하는 실수도 염두에 두면 좋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움직임의 순서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를 먼저 올린 다음 불편한 다리를 지팡이와 함께 올린다. 불편한 다리를 올린 후 지

팡이를 짚어도 좋다. 내려갈 때는 반대다. 안 교수는 "지팡이를 먼저 아래쪽 계단에 짚고 불편한 다리를 내린 다음 건강한 다리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보행기

바퀴·손잡이 수시로 점검을 보행기는 크게 ▶바퀴가 없는 형태 ▶앞바퀴 부착형 ▶네 바퀴형 등으로 구분한다. 이 중 개인의 근력과 균형 능력,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제품을 고르면 된다.

예컨대 네 바퀴형 보행기를 쓰려면 브레이크 조절을 위한 인지 능력이 필수적이다. 팔의 근력이 약할 때는 낙상 방지를 위해 바퀴가 없는 것보다 있는

제품을 택한다.

간혹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보행기 대신 집에 있던 바퀴 달린 장바구니나 휠체어를 끌고 다니는 이들도 있다. 이들 제품은 보행기와 달리 신체 사이즈, 특히 척추 각도에 맞게 높낮이를 조절하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척추가 앞으로 상당 부분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양대병원 재활의학과 김미정 교수는 "척추 골다공증이 동반된 노인은 척추후만증도 심한 상태"라며 "이 와중에 장바구니나 휠체어를 끌고 다니면 증상이 더 심해져 통증이 유발되고 상지 관절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보행기를 사용할 때는 주변 환경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전선이나 고르지 않은 바닥, 미끄러운 표면 등을 사전에 인식하고 피하도록 한다. 부가 장치로 보행기에 의자가 달린 경우 앉아서 휴식을 취할 때는 브레이크를 꼭 고정하고 주차(보조) 브레이크가 있다면 역시 함께 고정한다.

꾸준한 점검도 필수다. 김 교수는 "손잡이나 바닥의 고정장치, 바퀴를 수시로 점검해 조금이라도 마모된 부분이 관찰되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며 "특히 바퀴가 마모되면 자전거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사고 위험성이 커지니 주의한다"고 조언했다. **하지수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4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구인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증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d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산삼

하늘이 내린 최고의 명약

미국 가장 청정지역 West Virginia에서
저와 현지인이 직접 캐온 야생 산삼입니다.

"30~40년 이상의 최상급 산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역력 | 항암효과 | 당뇨 | 혈압 | 체력증강

1/2 Pound \$600부터

Dealer No. 90-491972 • Permit No. 007669

문의 (571) 236-8591

14800 Rydell Rd., Centreville, VA 22121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선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Blue Choice
- Anthem
- Aetna
- United Healthcare/GEHA
- CareFirst
- Innovation Health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교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시험 삼아 고객 측정하고 이해하고 파악부터

은퇴후 취미를 사업으로 바꾼 방법

어려서부터 돈 버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과거가 우리에게 있다. 한때 유행했던 우표 모으기를 떠올려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한심한 짓이었는지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난다. 이민을 떠날 때 이민 집에 우표책을 갖고 온 사람도 여럿이 있다. 미국에도 비슷한 것이 있다. 야구 카드 모으기 같은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런 취미 활동이 돈을 버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 이베이에서 팔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 특이한 것을 모으는 사람, 특이한 것을 만들어주면 돈을 주고 사는 사람도 있다. 또한 특이한 것을 가르치는 것도 가능하다. 그냥 방치했던 취미가 돈이 될 수는 없을 까. 전국은퇴협회에서 취미로 돈을 만든 여성을 소개했다. 개인적인 관심사와 기술도 돈을 벌게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말이다.

기술 장인 위한 Etsy 같은 플랫폼 많아 가족동영상 만들다가 입소문 덕에 창업

은퇴 생활을 최대한 즐기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독서부터 라켓 스포츠, 베이킹, 배드민턴까지 다양하다. 연구에 따르면 취미에 자주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한다. 하지만 일을 갖고 있던 은퇴했던 많은 사람이 취미로 인한 다른 이점을 발견했다. 바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돈을 벌게 되면 좋아하는 일이 계속 좋아하는 상태로 남아 있을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큰 단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온라인에서 저렴한 비즈니스카드를 만들어주는 사이트인 비스타 프린트(Vista Print)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설문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의 대부분은 취미를 부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꿈꾸지만,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다행히도 취미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 기관과 비영리 단체가 있다. 미국 중소기업청은 직원이 500명 미만인 독립 기업에 상담, 대출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

SBA 리소스 파트너인 SCORE.org는 멘토링과 교육을 제공한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체가 되는 것이 반드시 큰 프로젝트로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다. 모든 미국 소규모 사업주의 80%는 1인 사업자다. 즉, 혼자 일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숫자는 각 경제의 부상과 다른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앞으로 몇 년 안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매장을 여는 건 정말 쉽다.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다음 날 바로 세울 수 있다”면서 “진짜 도전은 시장을 이해하고,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해하고, 돈을 벌기 전에 이 모든 것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성공할 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사업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몇 가지 프로젝트나 부업을 맡아 고객 관심을 측정하는 것이다. 요즘은 취미가가 관심사를 수익화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수백 개 있다. 예를 들어, 손재주가 있는 기술 장인을 위한 Etsy나 동물 애호가를 위한 Rover.com이 있다.

#뉴욕의 배우 크리스티나 라투르는 2006년에 취미로 돈을 벌기 시작



뉴욕의 한 여성은 부모의 결혼식 기념 선물로 동영상 제작했는데 이를 계기로 아예 동영상 제작 취미로 창업이 가능했다. 한인 여성이 자신의 동영상을 프리미어로 편집하고 있다. [달리3생생]

다. 그는 공연자를 위한 데모 릴(짧은 동영상)과 특별한 행사를 위한 맞춤형 몽타주를 만든다. 최근에 그녀는 릴을 직접 편집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강좌 목록에 추가했다.

라투르는 부모의 50주년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면서 비디오 편집을 시작했다. 그는 부모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해주고 싶었다. 부모의 사진이 담긴 상자 와 오래된 슈퍼8mm 필름 비디오와 무성 영화를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사진과 구형 비디오 영상을 디지털 포맷으로 옮기고, 정지 사진을 추가하고, 음악과 함께 모두 모아서 부모에게 기념품으로 선물하는 것이었다. 그는 기본 비디오 편집 수업에 등록하고 비디오 제작 소프트웨어에 투자했다.(요즘은 무료도 훌륭하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연극계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고, 그들은 배우 릴을 만드는 데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더 좋은 점은 그들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판 당근인 ‘

크레이그리스트’에 자신의 서비스를 광고하여 친구 이외의 사람들에게 시험해보기로 결정했다.

거기서부터 입소문이 났다. 사업으로 만들 수 있었다.

#콜로라도에 거주하는 애넷 버크 리틀의 경우, 그의 고객들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11살 때부터 매료되었던 것, 즉 가계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전문가계도학회(Association of Professional Genealogists)의 회장이며 초보 연구자들을 돕는다.

그의 가계도에 대한 관심은 중학교 과제로 가계도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그는 증조모에게 연락했고 미국 독립 전쟁 당시 살았던 조상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다.

그의 어머니가 별세했을 때, 그는 세심한 메모, 사진 및 기타 기록으로 가득 찬 보물 창고를 물려받았다.

그는 가계도에 전념했고, 그러다가

‘전문가계도학자’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많은 공부 끝에 2014년에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비학위 계보학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기술을 향상시켰다.

은퇴 코치인 낸시 콜라머는 새로운 기업가에게 자격증 프로그램을 조사하라고 조언한다. 그러면 취미에서 더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커뮤니티 칼리지, 성인 교육 프로그램 및 산업 협회를 통해 제공되는 저렴한 과정을 찾을 수 있다.

#때때로 친구, 가족 및 네트워크의 다른 사람들이 취미와 관심사를 사업 기회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향산화 특성이 있는 특수 식품인 검은 마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에피큐리언 팬트리(Epicurean Pantry)의 창립자인 65세의 리사 자이틀이다. 그는 40년간의 기업 경력에서 2022년 1월에 은퇴한 후 두 번째 직업을 찾고 있었지만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 그러나 그리스 해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항해하는 동안 답을 찾았다. 검은 마늘 생산자이자 숙련된 요리사이기도 한 파티 호스트가 그들에게 짜짤한 향신료를 소개했다. 영양학 분야에 지식이 있었던 그는 영감을 받았다. 수출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기로 결정했다.

그와 함께 항해한 동료 중 한 명이 사업 계획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턴트를 소개했다. 이어서 공급업체와 협상하고 나중에 사업을 통합하는 데 도움을 준 변호사로 이어졌다. 2023년 7월까지 그는 첫 번째 배수를 받았고 온라인 사업은 12월에 시작되어 정량과 페이스북, 마늘이 들어간 꿀 등 다양한 별미를 건강에 신경 쓰는 가정 요리사에게 제공했다.

장병희 기자

비타민B 복합제 복용 좋아

갱년기 우울감 극복하려면

갱년기를 거치며 남녀 구분 없이 성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우울해지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 수면의 질과 집중력도 떨어지면서 매사에 짜증이 늘 수 있다. 전국은퇴자협회가 공개한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우울감 완화를 위한 방법을 소개한다.

▶커피 마시기=하버드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커피 한 잔이 여성들의 우울증 발병률을 낮춰준다고 한다. 카페인 중독이 우려되지만 무리하지 않으면 문제 없다.

▶잘 한 일 적어보기=잠자리에 들

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기분이 가라앉았다 보면 자신에게 부정적이 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매일 저녁에 그날 잘한 일, 예를 들어 아침에 알맞은 시간에 일어난 것이나 오후에 산책 등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잘한 일을 적어나가다 보면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면서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비타민B 섭취=규칙적으로 비타민B 복합제(B complex)를 섭취하

면 기분이 가라앉는 걸 예방할 수 있다. 건강 보충제를 하루 이틀 섭취한다고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보충제 섭취를 시작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걱정과 불안감도 완화 돼 일상에서 활기를 되찾는데 도움이 된다.

▶댄스 배우기=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춤을 추면 우울증과 불안,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존감 회복, 바디 이미

지 개선 및 신체 감각을 깨우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또 최근 UC버클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댄스는 스트레스 폭식을 통제하는데도 효과적이다.

▶햇빛 맞기=정서 장애 저널이 심리상담가들의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 상담한 내담자 1만 6000명은 맑은 날 훨씬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기분이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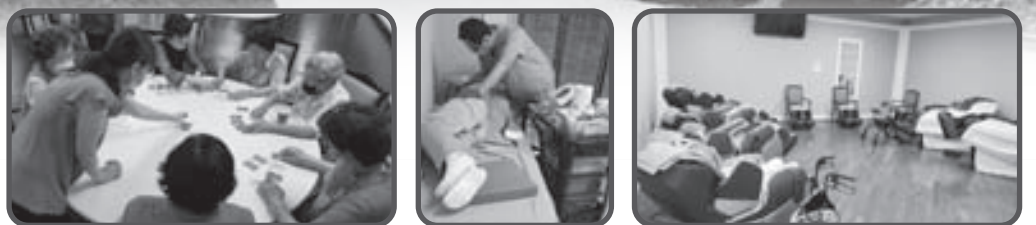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마리우폴에서의 20일’에는 러시아군의 포탄이 주거지역 아파트와 병원 등을 덮친 장면도 나온다. 러시아 폭격 이후로도 마리우폴에 남아있던 AP 통신 소속 기자들이 전쟁범죄에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참상을 기록했다. [사진 스튜디오 디에이치엘]

어떤 거짓말은 ‘지옥 문’도 연다... 그걸 보여준 푸틴

2022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없을 것”이라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그해 2월 24일, 러시아가 인접한 우크라이나 항구도시 마리우폴을 덮쳤을 당시 러시아군 포탄은 민간인 주택가로 날아들었다. 엄마 품에 안겨 피 흘리던 18개월 아기, 축구구를 하다 포격에 다리가 날아간 16살 소년 모두 당일 숨졌다. 폭격당한 산부인과 병동의 임신부는 골반에 치명상을 입고 태아와 함께 세상을 떠났다.

전 세계 언론 가운데 러시아의 침공 이후에도 마리우폴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AP통신 기자들이 3월 15일 탈출 때까지 20일간 카메라에 담은 참상이다.

6일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마리우폴에서의 20일’은 당시 기록을 94분에 압축한 작품. AP통신 영상기자인 우크라이나인 므스티슬라우 체르노우

‘두 얼굴 푸틴’ 폭로한 다큐 개봉 러 “민간인 공격 없다” 우크라 침공 AP ‘마리우폴 20일’로 거짓 드러나

감독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영상을 촬영했고, 내레이션-각본도 직접 곁했다. 그는 전쟁 범죄 참상을 세상에 알린 공로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지난해 풀리처상 공공보도상, 올해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상, 선댄스영화제 관객상(월드시네마 다큐멘터리 부문) 등 전세계 영화제 33관왕에 올랐다.

“전쟁은 폭발이 아니라 침묵으로 시작한다”는 담담한 인칭 내레이션으로 시작되는 이 다큐는 첫날 장면부터 긴박감이 가득하다. 취재진이 전쟁 임박 소식을 듣고 찾은 마리우폴에는 종일 장처럼 굳어진 자동차, 불타는 주택가 등 포격 흔적이 가득했다. 어린 딸을 둔 체르노우 감독은 자식을 잃고 울부짖

는 부모, 집을 잃은 가족을 외면하지 못한다. 촬영 도중 포격을 피하고 눈물을 흘치느라 카메라가 흔들린 화면도 허다하다. 마리우폴 시내로 진군한 러시아군 탱크는 병원과 소방서, 학교도 무차별 포격한다. 시신은 무더기로 도시 외곽 구덩이에 던져졌고, 이름 없이 숫자만 적힌 집단 무덤이 생겨났다. 도시 전체에 물·전기·난방·인터넷이 끊겼다.

침공 초기 “뭘 짚냐” “꺼져! 기레기야”라고 욕설하던 시민은 점차 다른 도시의 가족에게 자신의 생존을 전해달라고 다가온다. 망연자실한 의사는 “망할 놈의 푸틴에게 이 죽은 아이 눈을 똑똑히 보여주라”며 눈물을 떨군다. 위성전화로 간신히 전송한 이런 고통과 절규가 보도되자, 러시아 정부는 “서구 언론이 배우들을 써서 거짓 영상을 찍었다”고 매도한다. 마리우폴의 경찰이 AP통신 기자들 탈출을 목숨

걸고 도운 건, 이들이 러시아군에 붙잡힐 경우 “민간인 공격 영상은 거짓”이라고 말하게 강요당할 걸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30시간 분량의 취재 영상을 담은 하드디스크 등을 자동차 좌석 아래 생리대 등에 감춰 러시아 점령지 검문소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마리우폴 시민들에 대한 증거”(슬랜트매거진), “이 영화를 모든 저널리즘스쿨에서 가르쳐야 한다”(영국 타임스) 등 호평이 쏟아졌고, 로튼토마토 신선도 100%를 받았다.

올 3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체르노우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 일이 없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수상 영광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인 수만 명을 죽이지 않은 세상, 조국과 시민을 지키다 감옥에 갇힌 군인과 인질이 풀려나는 세상과 맞바꾸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다큐에서 그는 탈출 직전에 산

부인과 폭격 당시 한쪽 발을 잃은 임신부의 출산 현장을 찾는다. 아기는 하얗게 질려 태어나고도 한참 지나 울음을 터뜨린다. 포탄 소리는 건물을 뒤흔들 만큼 가깝게 들려온다.

마리우폴은 침공 86일 만인 2022년 5월 러시아에 함락됐다. 지난해 11월 체르노우 감독은 다큐 제작에 참여한 PBS와의 인터뷰에서 “마리우폴 주택 90%가 러시아 포격으로 손상·파괴됐고, 점령 후 러시아 회사들이 도시 재건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밝혔다. “남은 아이들은 우크라이나 정체성을 빼앗긴 채 러시아 정부가 해석한 역사를 배운다. 고아가 된 아이들은 러시아에 강제 입양됐으며, 많은 사람이 이에 맞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를 통해 “모든 참상이 러시아가 2013년 우크라이나를 처음 침공했을 때 시작됐다”고 짚었다. **나원정기자**

국극, 이렇게 힙했어? MZ도 빠져든 ‘정년이’

1950년대 공평한 시대 여성 소리꾼 이야기가 안방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2일 방영된 tvN 토 일 드라마 ‘정년이’(12부작) 7화는 수도권 가구 시청률 평균 10.3%로, 지상파 포함 전 채널 동시간대 1위(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기준)를 지켰다. 이날 주인공 유정년(김태리)은 극중극 ‘자명고’의 구슬아기 대역을 비범하게 소화해 매란극단 정식 연구생이 됐다. 지난 1일 ‘K컬처 트렌드 포럼’ 발표에서 김태리가 드라마 MVP에, 동명의 원작 웹툰도 웹툰 MVP에

각각 뽑히는 등 화제성도 높다. “정년이”는 천재 소리꾼이 당대 최고 인기 장르였던 여성국극 스타가 되는 과정을 그린 성장 서사물로, 2019년부터 3년간 138화로 연재된 원작 웹툰(글 서이레, 그림 나문)을 영상화했다. 1화부터 ‘자명고’의 호동왕자 역 문옥경(정은제)과 목련공주 역 서혜랑(김윤혜)의 맞보기 공연 장면이 시선을 끌었고, ‘춘향전’ ‘자명고’ 등 극중극을 공연장에서 중계하듯 구현했다. 김태리 등 주요 배우들이 수년간 소리를 연마

했고, 후반작업으로 보완해 극중 소리의 완성도를 높였다.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김선대 책임프로듀서는 “50·60년대 관객이 국극 무대를 통해 고단한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었듯, 그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게 국극 연출가(박민희)와 전문 스태프를 별도로 꾸려 촬영했다”고 소개했다. 정지인 연출은 “모든 캐릭터를 여성 배우가 소화하는 과정은 생각 이상의 희열이 있었다”며 “이런 에너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 카메라 움

직임과 후반 작업에 힘썼다”고 전했다. 우리 소리와 춤, 이야기가 젊은 세대에겐 새로운 발견을, 나이든 세대에겐 기억의 미화를 선사한다. 매란극단 연구생의 선발·수련이 K팝 아이돌 그룹 연습생 훈련과 다르지 않고, 숙소 앞에 진을 치는 팬덤 묘사도 요즘 대중문화와 비슷하다. 정 연출은 “국극 자문을 한 정은영 작가(영화 ‘정동의 막연출’)로부터 우리나라 팬클럽 시초가 여성국극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당시 기사 등 자료에서 확인되는 팬들의 열정이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극중극을 위한 ‘오디션’(당시 표기) 대결이 일종의 ‘서바이

벌 게임’처럼 전개되는 것도 흥미를 돋운다.

드라마·영화를 막론하고 대세 배우인 팔색조 연기의 김태리, ‘국극 황태자’로 불리는 문옥경 역으로 중성적 매력을 발산하는 정은제, 영서 역의 신예은 등이 고른 활약을 펼친다. 다만 원작에서 국극단 안에서 전개되는 동성애 코드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과 달리 드라마는 핵심 쿼터(성소수자) 인물을 생략하면서 일각의 비판을 샀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여성의 연대와 성장이라는 중심 줄거리에 주력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강혜란 문화선임기자**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어르신 모십니다!

“정성과 돌봄이
다릅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양질의 한식과 간식
- 최고의 시설 (1인/1실)
- INOVA 병원 5분 거리

- 한국 TV 시청 가능
-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문의 703-980-9890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 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U-20 이어 U-17 제패... 북한 여자축구, 왜 강한가

북한 여자축구가 '세계 최강'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지난달 콜롬비아에서 열린 20세 이하(U-20) 여자 월드컵에서 8년 만에 정상에 오른 데 이어 이번엔 17세 이하(U-17) 여자 월드컵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북한 17세 이하 여자축구 대표팀은 4일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의 에스타디오 올림피코 펠릭스 산체스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U-17 여자 월드컵 스페인과의 결승전에서 전·후반 90분을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3으로 이겨 정상에 올랐다. 북한이 이 대회에서 우승한 건 지난 2016년 요르단 대회 이후 8년 만이자 통산 세 번째다.

결승전은 스페인이 경기 주도권을 유지한 가운데 북한이 역습 찬스에서 날카롭게 반격하는 양상으로 진행됐다. 스페인이 전반에 여러 차례 결정적인 슈팅을 시도하며 선제골 기회를 잡았지만, 북한 수비진의 육탄 방어에 잇따라 가로막혔다.

스페인 후반 16분 셀리아 세구라의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지만, 북한은 3분 뒤 전일청이 동점 골을 기록하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전·후반 90분을 1-1 동점으로 마친 양팀의 희비는 승부차기에서 엇갈렸다. 스페인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키커가 잇달아 실축했지만, 북한은 두 번째 키커만 실축해 결국 북한의 4-3 승리로 경기가 끝났다.

시상식에서는 북한 공격수 전일청이 골든볼(대회 MVP)을 받았다. 전일청은 지난 5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U-17 아시안컵에서 득점왕(6골)에 오른 데 이어 월드컵에서도 맹활약하며 북한의 우승을 이끌었다. 송성린 북한대표팀 감독은 "유럽 최강 스페인을 통쾌하게 이겼다"면서 "아시아 최강 팀이 세계



여자 축구 U-17 월드컵에서 스페인을 꺾고 우승한 북한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공격수 전일청은 대회 MVP인 골든볼을 받았다. (AFP=연합뉴스)

최강이 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여자축구는 두 달 연속 FIFA 주관 월드컵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지난달 콜롬비아에서 열린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 8년 만에 우승한 데 이어 이번 대회마저 제패하며 '세계 최강'의 실력을 입증했다. 북한 여자축구가 이토록 강한 비결은 뭘까. 무

엇보다도 북한 특유의 저인망식 선수 발굴·육성 시스템을 가장 큰 비결로 꼽을 수 있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축구에 재능을 보이는 9~15세 여자 아이들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선발한 뒤 여러 단계의 테스트를 거쳐 연령별 최정에 멤버를 꾸렸다. 이번 대회 MVP 전일청을 비롯해 골잡이 최립정, U-20 여자 월드컵 득점왕과 MVP를 차

지한 최일선 등이 이런 방식을 거쳐 국제무대에 등장한 특급 스타들이다.

여자축구 대표팀 사령탑을 역임한 윤덕여 세종스포츠토토 감독은 "북한이 축구 유망주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설립한 평양국제축구학교 학생 200여명 중 40% 가량이 여자 선수"라면서 "이들은 유럽식 시스템 아래에서 훈련하면서 해외 전지훈련을 통해 기량을 키운다. 북한 당국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운동선수들이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 대한 보상도 과격적이다. 일단 여자축구 대표팀에 선발되면 가족과 함께 평양으로 이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윤 감독은 "북한에서는 '평양 거주' 자체가 어마어마한 혜택"이라면서 "국제대회에 입상하면 '체육 영웅' 칭호와 함께 연금을 받는다. 아파트와 자동차 등을 부상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엘리트 선수층이 얇아지면서 국제대회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둔 한국 여자축구와는 대조적이다. 한국은 콜린 벨(잉글랜드) 감독 시절이던 지난해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8강에 머물렀고, 8월 파리올림픽에선 본선에 오르지도 못했다.

WK리그 팀 감독을 지낸 한 축구계 인사는 "TV 예능 프로그램 등의 영향으로 생활축구 영역에서는 여자팀과 선수들이 급증했지만, 엘리트 부문에서는 선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면서 "골프 등 다른 스포츠와 비교해 볼 때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여자축구 시장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송지훈 기자

캡틴 손, 대표팀 돌아온다... 이을용 아들 이태석도 첫 발탁

부상에서 회복한 손흥민(32·토트넘)이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을 치르는 축구대표팀에 복귀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4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11월 A매치 엔트리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을 포함한 26명의 선수 명단을 공개했다. 손흥민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요르단 전(2-0승)과 이라크전(3-2승) 등 지난 달 A매치 2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했다.

손흥민은 지난달 19일 웨스트햄과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8라운드 경기에서 선발 출전하며 4경기 만에 복귀전을 치렀지만, 경기 이후 부상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다시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 2주 만인 3일 에스턴빌라

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에 후반 4분 시즌 3호 도움을 기록했다.

하지만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후반 11분 손흥민을 빼고 히살리송을 투입했다. 예상하지 못한 이런 교체에 손흥민은 이례적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 보호 차원의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손흥민은 첫 부상 복귀전이었던 웨스트햄전에서 60분 정도 뛰었을 때 부상을 당했다. 이번 경기에서도 55~60분 이상은 뛰지 않도록 할 예정이었다. 앞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전투가 많이 남아 있고, 그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이 그라운드

에 돌아왔고 (경기력) 모두가 확인했다"면서도 "출전 시간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 대표팀 소집 전에 두 경기가 남았고, 토트넘에서 얼마나 시간을 늘려가는 지가 중요하다. 선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유심히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감독은 세대교체 작업도 멈추지 않았다.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 주역 이을용 용인축구센터 총감독의 아들인 측면 수비수 이태석(포항)을 포함해 미드필더 김봉수(김천)와 이현주(하노버), 골키퍼 김경민(광주) 등 새로운 얼굴 4명을 발탁했다. 아울러 1-2기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던 골키퍼 이창근(대전), 수비수 이기혁(강원)도 발

탁되었다.

홍명보호는 오는 14일 오후 11시 쿠웨이트 쿠웨이트시티의 자베르 알아흐마드 국제경기장에서 쿠웨이트를 상대로 원정 5차전을 치른다. 이후 19일 오후 11시에는 중립경기장인 요르단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6차전을 벌인다. 앞선 4경기에서 3승 1무(승점 10점)로 B조 선두에 오른 한국이 두 경기에서 모두 이길 경우 2위 그룹인 요르단·이라크(이상 승점 7점)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홍 감독은 "대표팀 골격을 유지하면서 미래 자원을 동행하는 방식으로 선수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피주영 기자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3일 에스턴빌라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복귀전에서 경기하고 있다. 홍명보 대표팀 감독은 "손흥민의 경기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AFP=연합뉴스)

궁금한 기사
중앙일보 안에
있습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려,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에서 3분, 남부스푼 북대원 환우회+mar에서 10분 거리

센터빌 / 챔틀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인어회+mar)와 챔틀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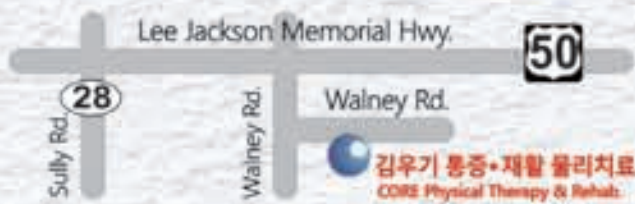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옹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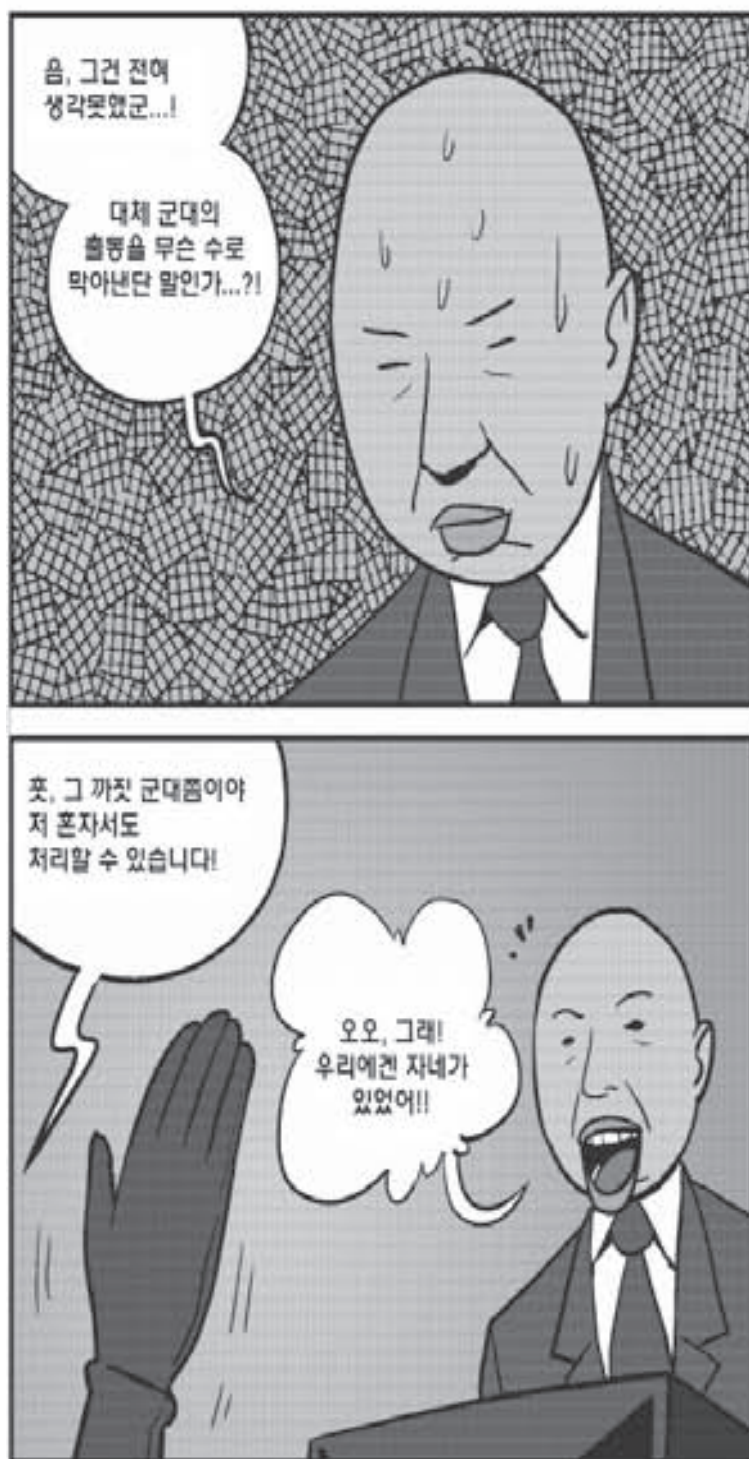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필레이 THE SIXTH SENSE **식스센스** 오늘의 주제 날씨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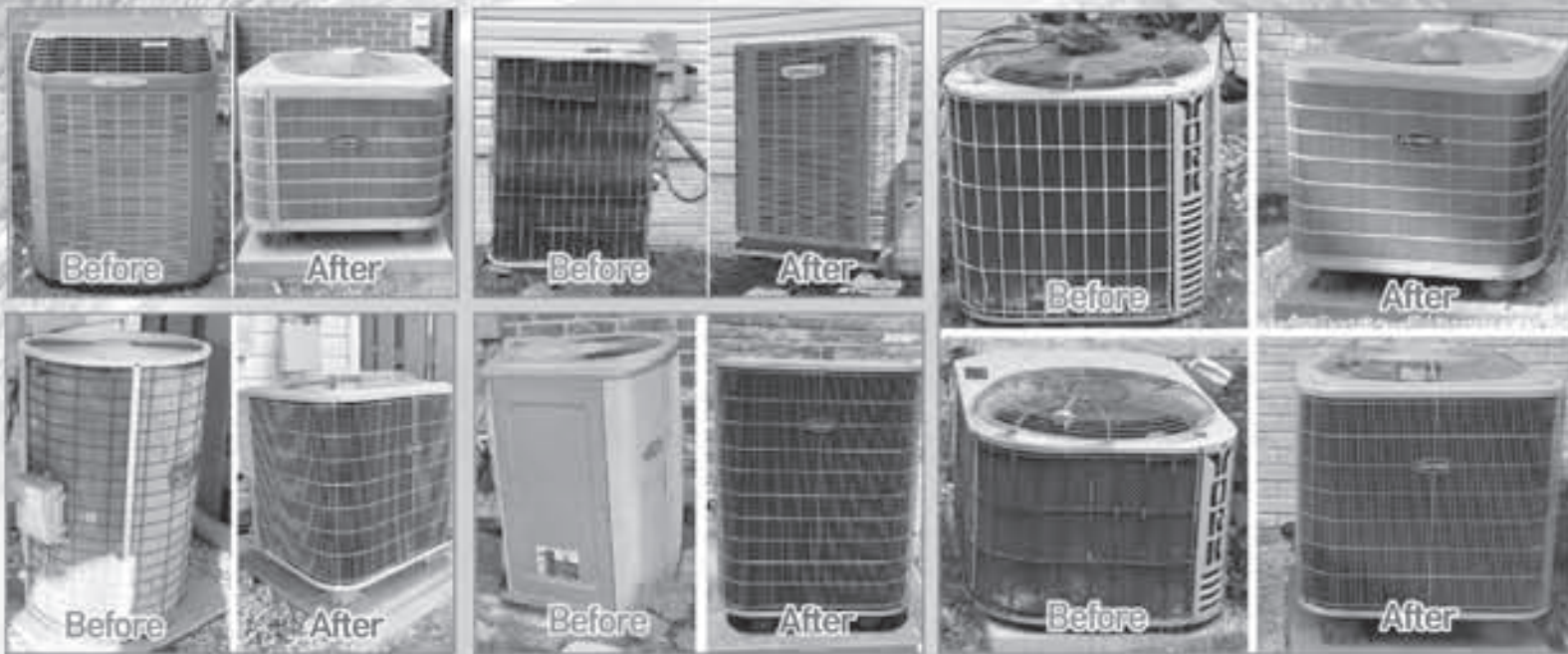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려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11월
구
인
광
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우표수집에 관심이신
분 연락 바랍니다!

우 표

우표 수집한것 팝니다
오랜동안 수집 해 온
(한국, 미국, 여러나라 우표)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이
더 좋은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구 인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 ◎ 구매부 0명
- ◎ 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경험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문의
301-477-4710

LÖ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کم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 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 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
라이센스 교육 가능
-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LA mart

구 인
**LA 마트내
볼티모어지점
스페니쉬
베이커리
임대하실분**

문의
410-646-1501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금 매
한식+일식
센터빌 VA**

- ▶ 연매상 100만+25만
급하게 처리원함
- ▶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AGENT 환영
443-631-3125
SERIOUS INQUIRIES ONLY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포츠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디작'을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근무조건: 풀타임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 코디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co.kr

버지니아 한의과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리/풀타임/파트타임 가능
▶571-243-42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급,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u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종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종언어 가능, 컴퓨터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식당/식품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합니다.
연락처 703-712-7089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속소 원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
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헌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드립니다)
571-365-8303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알렉산드리아 MATSUI 일식당에
서 풀타임 시스맨 구합니다!
703-888-6627 (MR. 노)

▶▶Honest Grill 에서 파트타임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543-2320

아난데일 한식당에서 경력있는 웨이트
레스 / 쿡하실분 구합니다.
301-938-4075 문자요망

▶▶텍사스도넛센터빌베이커보조구함(아르)
영주권 스폰서 가능
703-462-4349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이미용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 토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셔니스트
구함(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이발소를 \$8만만 판매/하노버 매릴
랜드 엘리컷시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
노가 있는 분주한 쇼펜센터를 개조/ 저렴한
임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세탁/엘터레이션

▶▶로튼 세탁소 파트/풀타임 카운터
보실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3-599-5331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킹 하실
분/파/풀 타임(문자요망)
703 608 5183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배킹, 프레스,
빨래/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즈로
판매. (컴퓨터, 엘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스톨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하실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정비/바디샵

2006 Toyota Sienna
20만6천마일, 703-825-0852(문자)

포드 광통벤 냉장림, 18만, 12년,
굿 컨디션. \$8,500.
240-796-0093

▶▶자동차 정비 매케너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일하실분
모집합니다. 메케너, 준메케너, 헬퍼구함.
703-266-1983

Chantilly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
클린)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기타/구인/청소

▶▶VA 스프링필드/페어팩스 지역.
밤청소하실분
703 980 1917

골동품 이조기구진품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매가능, 일본물건도 있음.
240-796-0093

버크 테렌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홀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종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홀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종언어, 교육자
전공자&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 (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박스배달요원을 구합니다.
애난데일. 운전가능자
571-242-3736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훔알아서 해주실분
703-473-6022.

각 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처주세요.
703-537-6756 (써니 한)

파트타임 구함. 이종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남여노스 환영.

703-424-8596

필그림유치원 교사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합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컴퓨터에서 일하실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경력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싱글/타운하우스렌트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홀
위층 방3개, 화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2개, 사무실, 화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

애난데일에 위치한저택렌트합니다.
(알링턴 2마일, DC 7마일), 3층, 7베드룸과
7베스전체 7500+sf의아름다운집!
.크레딧없는분도가능! 월\$7,495.
703-244-3453

▶▶싱글홀 지하 렌트 워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와슈어,
66번가 가까운 페어팩스, 지하 출입문 별도
▶703-489-6926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홀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홀 렌트 \$3,500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카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콘도 렌트

▶▶센터빌 롯데근처 콘도 방2, 욕
실 1.5 즉시 입주 가능/깨끗하고 위
치 좋음, \$2,150
301-466-1646/301-529-2175

▶▶SALE 콘도 아파트 2층
방2/마루/전철역/좋은 학군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직원 모집

워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
사무직/편집/디자이너
- 기본 MS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
▶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보내실 곳 (이메일)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Junk828282.com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 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703-336-3283

▶▶애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물값과 가스비 포함되어 있음). H-Mart 가까이. 교통편리. 703-477-3114.

▶▶아난데일 H마트 옆. 방/1, 가구완비, 남여 직장인/유포/\$800 703-350-1986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이,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방렌트

▶▶지하방1/웍아웃/샤워/간단취사가능/여자/커플 환영/페어팩스 머릴필드지역 571-229-7124

▶▶애난데일 콘도 방1/화1/식사/라이드가능/K마트 근처 703-362-5425 703-772-5622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출입문 별도, 샤워, 화장실, 인터넷, 유틸리티 포함. 한인마트 2마일. 출퇴근하는 직장인 한분만 원합니다. 703-405-9005

애난데일 콘도 방1/화1/식사/라이드가능/K마트 근처 703-362-5425 703-772-5622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출입문 별도, 샤워, 화장실, 인터넷, 유틸리티 포함. 한인마트 2마일. 출퇴근하는 직장인 한분만 원합니다. 703-405-9005

애난데일 콘도 방1/화1/식사/라이드가능/K마트 근처 703-362-5425 703-772-5622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출입문 별도, 샤워, 화장실, 인터넷, 유틸리티 포함. 한인마트 2마일. 출퇴근하는 직장인 한분만 원합니다. 703-405-9005

애난데일 콘도 방1/화1/식사/라이드가능/K마트 근처 703-362-5425 703-772-5622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출입문 별도, 샤워, 화장실, 인터넷, 유틸리티 포함. 한인마트 2마일. 출퇴근하는 직장인 한분만 원합니다. 703-405-9005

애난데일 콘도 방1/화1/식사/라이드가능/K마트 근처 703-362-5425 703-772-5622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출입문 별도, 샤워, 화장실, 인터넷, 유틸리티 포함. 한인마트 2마일. 출퇴근하는 직장인 한분만 원합니다. 703-405-9005

애난데일 콘도 방1/화1/식사/라이드가능/K마트 근처 703-362-5425 703-772-5622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출입문 별도, 샤워, 화장실, 인터넷, 유틸리티 포함. 한인마트 2마일. 출퇴근하는 직장인 한분만 원합니다. 703-405-9005

애난데일 콘도 방1/화1/식사/라이드가능/K마트 근처 703-362-5425 703-772-5622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출입문 별도, 샤워, 화장실, 인터넷, 유틸리티 포함. 한인마트 2마일. 출퇴근하는 직장인 한분만 원합니다. 703-405-9005

애난데일 콘도 방1/화1/식사/라이드가능/K마트 근처 703-362-5425 703-772-5622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출입문 별도, 샤워, 화장실, 인터넷, 유틸리티 포함. 한인마트 2마일. 출퇴근하는 직장인 한분만 원합니다. 703-405-9005

애난데일 콘도 방1/화1/식사/라이드가능/K마트 근처 703-362-5425 703-772-5622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출입문 별도, 샤워, 화장실, 인터넷, 유틸리티 포함. 한인마트 2마일. 출퇴근하는 직장인 한분만 원합니다. 703-405-9005

▶▶싱글룸 지하렌트 조지메이슨 근처 워아웃, 방2, 거실, 화장실, 풀키친, 워셔, 드라이어 703-898-3838

Burke H-Mart 10분거리 2층 타운홈 취사, 가구 즉시 입주 가능 방 1 \$600 방 2 \$1000 여자분 한함/문자바람 703-678-7833

▶▶아난데일 예촌근처 반지하 전체 방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아난데일 예촌 앞 출입문 별도 방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703-622-2033

애난데일 지역 싱글룸, 방1개 렌트 ▶703-470-5238

단독주택 출입문 별도. 지하방2부엌 거실 욕실등(문자요망) 202-985-9191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콘도 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층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룸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4, 화4, 편리한 램블러 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립물,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셔아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부동산/상업용 매매

▶▶엔지 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심해 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 | 식당 | 카워킹 | DC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Seafood 매매 Woodbridge VA \$165,000, Open: Mon-Sat (6일 근무) 자기사업에 관심있는 분 연락주세요! 703-967-3963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립물,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오토 리페어 (VA) 연매상-\$850,000. 포텐셜 좋음

매매 -\$38만(실 바이어 Only) 571-242-3736

우표수집한것 팝니다. 우표수집하시는분 연락바랍니다. 오랜동안 여러나라의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이 새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풀타임 내니를 구합니다! 703-822-7810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학·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밀세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헬터 / 시간: 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통역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광서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피맛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터, DMV,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매매

▶▶귀국 관계로 가사일체를 헐값이나 무료로 드립니다. 허벅션, 청전등 고미술 품과 돌침대 가재도구 다수그림과 수백권의 책 무료로 드립니다 443 799 2124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무빙세일역 이민 가구 및 생활용품 정리. 냉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서랍장 외... 703-203-5177(3시 이후 전화오망)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 터너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손사이드 / 메케닉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 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대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어트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콜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콜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드벨라 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풀만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삿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밀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 홈 Mr. 박 703-434-2810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링/전등/햇팅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적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박-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풀만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전문
- 목수, 타일, 마루, 벽, 캐비닛 샌딩 보수
- 핸디맨, 플러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83-2083	051-469-4191	310-767-56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Movers LLC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소독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 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돌반지 팔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 전기)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홈 플러밍/집수리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핸디맨

◆수도꼭지 교체 ◆루핑수리/거러교체
 ◆싱크/디스포저 ◆사이드 리페어/창문
 ◆워터히터/물새는것 ◆데크 수리
 ◆하수막힘/변기교체 ◆드라이월/페인트
 ◆썩펌프 교체 ◆파워워시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 라이선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킹스펙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한국산 Smart Curtain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LVT (Luxury Vinyl Tile)
 ●VCT (Vinyl Commercial Tile)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이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Whether you) like it or no: **좋든 싫든**

(Two friends are having lunch...)

(친구 둘이 점심을 먹으며...)

Lena: I had the most amazing weekend.
리나: 나 지난 주말 멋지게 보냈다.
Tracy: I have the feeling you're going to tell me about it.
트레이시: 왜 그랬는지 얘기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Lena: I am whether you like it or not
리나: 맞아 네가 좋아하던 싫어하던 얘기할 거야.
Tracy: Well get on with it, I have to go to class.
트레이시: 그럼 빨리 얘기해. 나 수업 들어가야

하나까.
Lena: I went to Morro Bay and saw at least one hundred sea lions lying on the beach.
리나: 모로 베이에 갔었는데 바닷가에 못 해도 100마리는 되는 바다사자가 누워있는 거야.
Tracy: Were they alive?
트레이시: 살아있는 거였어?
Lena: Yes. They go there every year to have their babies.

리나: 응. 해마다 새끼 낳으러 거기 온대.
Tracy: That's what was so amazing?
트레이시: 그게 멋졌다는 거야?
Lena: I should know better than to talk to you about nature.
리나: 너한테 자연 얘기하는 내가 바보지.
Tracy: True but you can tell me about your trip to Las Vegas.
트레이시: 그건 그래. 그래도 라스베이거스에 갔던

이야기는 해도 돼.
기억할만한 표현
▶ to have the feeling (that): ~한 것 같다?
I had the feeling she was not telling the truth. (그녀가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
▶ get on with it: 서둘러?
I don't have all day so please get on with it. (나 하루 종일시간있는 게 아니야. 서둘러.)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가로열쇠

(1)홀로 푸르게 서 있음. 홀로 절개를 굳세게 지키고 있음.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었다가/백설이 만견곤할 제 ~하리라(성삼문). □□□□ (4)자리에서 일어나서 손뼉을 치 (7)물속에서 헤엄칠 (8)어린이를 덮어 주거나 업을 때 쓰는 작은 이불 (9)자기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함 (11) 옮겨 심는 어린나무. 어린 사과 ~을 마당에 심었다 (12)코로나19야, 어서 물러나거라. ①마스크 착용 ②손 씻기 ③거리 두기 ④모임 외출 자제 ⑤자주 환기하기 (14) 낚시 끝에 꿰어 다는 물고기의 먹이 (15) 물고기를 찢어 잡는 데 쓰는 기구 (17) 널리 대다수의 사람이 즐겨 부르는 노래 (20) 어머니의 젖. 충분한 ~로 성장하면 병에 대한 저항력이 있다 (21) 일반인들 사이에서 헛되고 바르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믿음이나 신앙 (23) 야구에서, 2루와 3루 사이를 지키는 내야수 (25) 한테에서 자는 잠 (26)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적을 치. 동쪽을 쳐들어가는 듯하면서 실제로는 서쪽을 공격함. □□□□ (27) 갑이라는 남자와 을이라는 여자. 평범한 사람들

세로열쇠

(1) 아내가 남편 없이 혼자 지내는 것. □□□□ (2) 야외에서 먹고 잠 (3) 녹두로 쏜 묵. 녹두꽃이 떨어지면 ~ 장수 울고 간다 (4) 몹시 기아하고 묘함. 바위와 절벽들이 ~하게 생겼다 (5) 노래를 부를 때는 ~와 음정을 잘 맞추어야 하지요 (6) 어떤 사물을 빗대어 말하여 이름을 알아맞히는 놀이. 계절에 관계없이 사시사철 피는 꽃은?(웃음꽃) (10) 2, 4, 6, 8 ... 우수. ←홀수 (13) 늘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만 하는 액운 (14) 좋은 음식을 찾아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 (15) 어제 마신 술이 아직 깨지 않음. □□□□ (16) 어른과 어린이 또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는 지켜야 할 차례와 질서가 있음. 오륜의 하나 (18) 낮에 끼니로 먹는 음식. 점심 (19) 말과 행동이 정숙하고 자제가 기품이 있는 여자. □□□□ (22) 재주와 슬기가 남달리 특출한 아이. 국악 ~ 김태연 (24) 양쪽 손목에 걸쳐서 채우는 형구 (25) 해질녘 산마루 넘어가는/연분홍 ~/아침에는 어둠 풀고 치초은/불덩이더니/하루 종일 온 세상 비추는/따스한 빛 이더니/어쩌면 하루의 마음이/이다지도 고울 수 있을까(정연복)

스도쿠

			7					
4	1		9	6		8		
			7		5	1		
	4		2				7	
1	7		4	8	5	6		
2	3	5						9
8	9		5					
7		1		2	3			5
			6	9				1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8	1	2	4	6	9	2	5	3
5	4	6	3	2	8	1	9	7
9	2	3	7	1	5	4	6	8
6	8	4	9	7	1	5	3	2
2	3	9	5	8	4	6	7	1
1	7	5	6	3	2	8	4	9
4	9	2	1	5	3	7	8	6
7	5	8	2	9	6	3	1	4
3	6	1	8	4	7	9	2	5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 워싱턴 중영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영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영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영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워싱턴 중영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year CVS:	카드 뒷면 3자리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매매 기타

모지 급매(주인)
2차리에 \$9,500(네고가능)
Glen Abbey Memorial Park내
무궁화 등산 한인묘소
위치 좋고, 전망 좋음
(818)515-0136 Mr.Jung

홀트 식물원
각종 한국과일
나무와 씨앗 / 각종모종
(909)625-4577
11602 Ramona Ave.
Chino, CA 91710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미주 중앙일보는 한인사회의
뉴스와 목소리를 주류사회와
한인 2~3세들에게 전달하고자
영어뉴스 사이트
(Koreadailyus.com)를
출범시켰습니다.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us.srotech.com **건설온돌 난방 진짜가 나타났다**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세계에서 가장 좋은 환경 (Minas Gerais, Brazil)에서 생산된 최상의 품질 Green Própolis

미국FDA, Brazil SIF 승인 받은 제품
미국, 귀국 선물용 Wholesale Only (Min.dozen up)
Tel: (213)500-7363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헐트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참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달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703-8809, papaaaa.com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50**

www.koreadaily.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9월 햇산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홍채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강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2024 야생 햇산삼을 소비자와 함께 공동 구매합니다.

야생 햇산삼 공동구매

지금지긋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심마니 가격 450g 한/정/판/매

	소비자 가격	중간 마진	심마니 가격
중(M)	\$3,500	→ \$1,700	→ \$1,200
대(L)	\$4,800	→ \$2,400	→ \$1,400
특대(XL)	\$5,800	→ \$2,900	→ \$1,800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미주 동시어??!!**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신선농원 건대추 판매 11월 5일부터!!

좋은 건대추를 농장에서 직주문 하세요!

묵은해 대추 : NO
썩어서 말린 대추 : NO
감미료 첨가 : NO
화학비료 사용 : NO
농약 사용 : NO
중국산 대추 : NO

숙성된 퇴비를
듬뿍 사용하여 재배한
양질의 대추를 100%
천연광으로 정성껏
건조시켜 맛과 영양 보존
상태가 최고인 고급 건강
햇 대추입니다

건대추 미주 전지역 운송비 포함 가격

\$170 /10LBS•1BOX \$14/lb 대추	\$140 /10LBS•1BOX \$11/lb 대추	\$100 /10LBS•1BOX \$7/lb 대추
--	--	---------------------------------------

* 하와이, 알래스카 추가운송요금 * \$7/lb 대추는 \$11/lb와 품질은 같으나 사이즈가 작습니다.

전화주문 **714.833.4988**

* Pay by Zelle or Check (payable to Han You)
* No credit card
* 2060 Darby St, San Bernardino, CA 92407

농장방문시 전화예약 필수

MD, DC, VA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의료진 과실 혹은 부주의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 상해
혹은 예기지 못한 사망에 이르는 일을 겪으셨나요?

잘못 제조된 의약품으로 고통 받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에 호소해도 과오를 부인하거나 무시되고 있나요?

그 고통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저희 의료사고 변호사가 해당분야 전문의와 협업하여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변호사

출산 분만시 오류로 인한 외상, 뇌손상 혹은 질병

수술 과실, 수술 후 마비 및 부작용

응급처치, 진료 및 치료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질병과 부상

병원시설 내 낙상사고, 의료기기 오류로 인한 상해

잘못된 약처방, 약물 과다 처방, 위험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심한 부작용 혹은 사망

오진 및 치료지연 과실

성형수술 부작용 및 의료사고



첫 미팅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410-772-2324

“성황앤김 변호사 사무실의 찰리 성 변호사를 찾아 주십시오.”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